



Incheon

‘인천의 꿈은, 언제나 깨어있습니다’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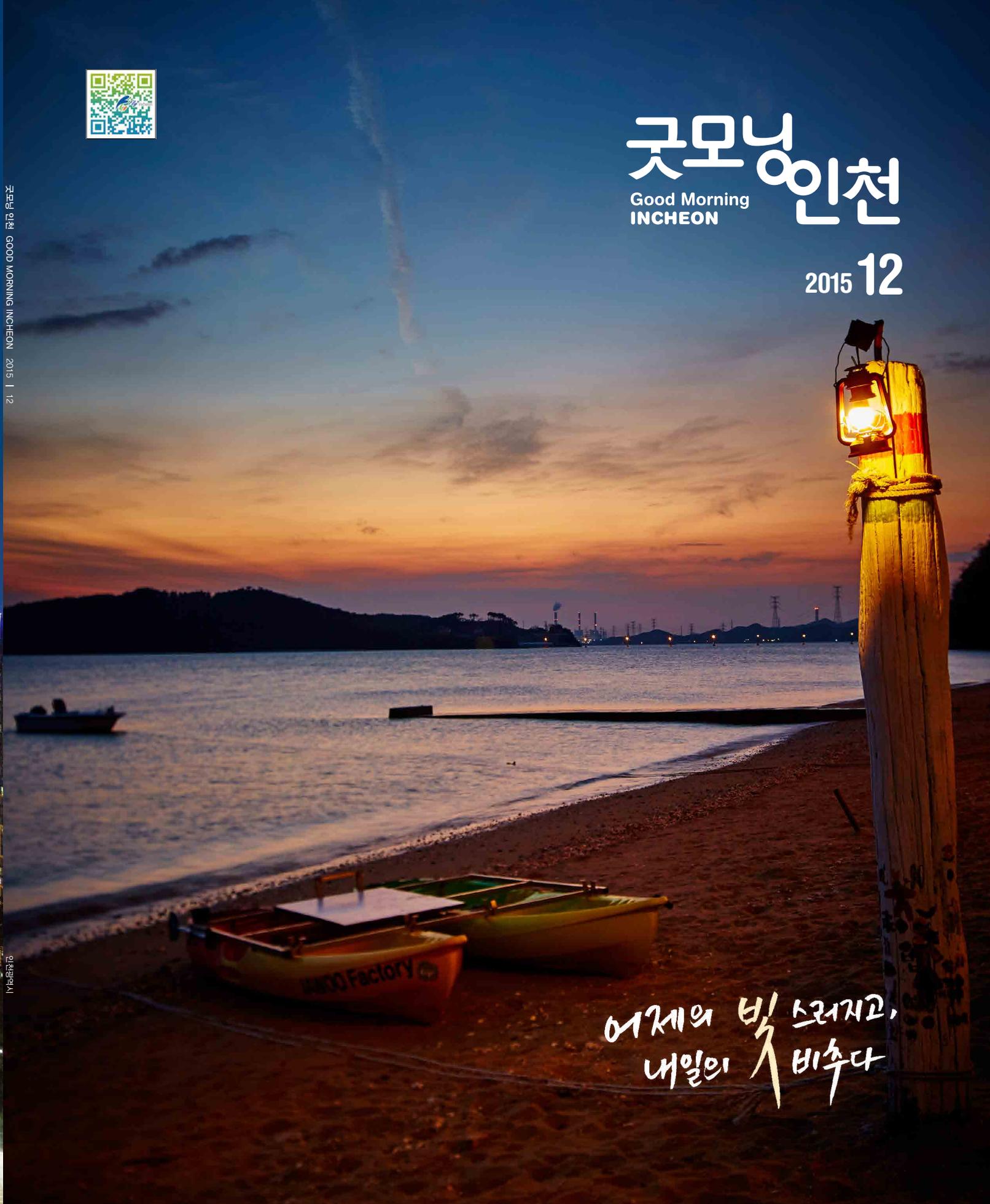


Communication



Fruition

깨어있는 꿈, 살아 숨쉬는 인천을 위해 행동하는 혁신,
공감하는 소통으로 변화의 성과를 이루어 갑니다.



어제의 빛 쓰러지고,
내일의 비쭉다

보문사

함민복

삼산면 낙가산 아,
 보문사에 가시면 눈
 돌계단 힘들더라도 부
 눈썹바위 한번 만나보श्य 처*

눈썹바위 아래 수천수만 중생이
 부처님 한분 계시지요 다 부처라는
 눈썹바위 밑은 말씀
 눈동자바위라 팡! 들어보श्य

내 모습이 비쳐야 할 눈동자바위에
 내 모습 아닌 부처가 * 눈동자에 비쳐 나타난 사람의 형상



함민복

1962년 출생. 인천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거주.
 1988년 계간 <세계의 문학> 등단.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말랑말랑한 힘> 등의 시집 발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수영문학상>, <박용래문학상>,
 <윤동주문학대상> 등을 수상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전자책으로도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 이북, 네이버북스, 인터넷서점 알라딘, 바로북, 예스24 등에서 굿모닝인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스토어의 안내에 따라 뷰어를 설치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인천만의 가치창조 인천 섬 선재도	06
송년 특집 동양화학 내 극동방송 선교사 사택	14
인천과 극동방송	18
인천 곳곳 구도심 카페	22
2015 아듀 2015 주요 시정 성과	28
내 길 내 일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 대표	32
까치밭로 본 인천 ㉔ 경동 예지요양원 → 싸리재	34
CULTURE INFO	38
시간 속을 걷다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시	42
NEWS BRIEF	44
COUNCIL NEWS	48
포커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50
INFO BOX	51
이달의 책	54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야'	55
2015년 굿모닝인천 과월호 목차	56
모닝 커피 한잔 최보길 강화 산마늘고등학교 교사	5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청 편집인 우승봉(대변인) 편집장 유동현(홍보컨텐츠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김보섭·김성환·김상덕(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씨에디터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CONTENTS 2015. 12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64



06



18



22



COVER STORY

한 해의 끝, 서쪽 바다에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매일 뜨고 지지만, 한 해의 끝에서 맞이하는 태양은 마음에 달리 다가옵니다. 어제의 빛이 어둠 속에 스러지고, 내일의 빛이 찬란히 비춥니다. 그 빛을 가슴에 새기며 내일도 힘내어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 노을 내리는 선재도 당너머 해변에서.

소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문'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SNS와 소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인천 날씨 '쾌청'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인천 날씨는 언제나 '쾌청'.

시민 말씀이라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이용 안내 앱 '120 인천', SNS @120incheon,
전화 및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인천에 물 위를 달리는 버스가 있다던데요.

↳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륙양용 버스로,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 아라뱃길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쿠아관광코리아(주) 1670-3355(751-33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단속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공휴일 제외)까지 단속합니다. 365일 24시간(공휴일 제외)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세계백화점 북문 버스정류장 ⇒ 단 오전 12시~4시까지의 카메라 단속 없음
②BRT구간
③봉오대로(아나지사거리~골포천) -효성동 풍산아파트 앞(서울 방향, 인천 방향)-작전동 이마트 직전(서울 방향, 인천 방향)

시흥시 정왕동에서 차이나타운까지 가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지하철 이용 시 정왕역 ⇒ 오이도역 ⇒ 원인재역 ⇒ 부평역 ⇒ 인천역 하차 후 도보. 버스는 이마트정류장에서 8855번 버스 탑승 후 제물포역 정류장에서 15번 버스로 환승하여 인천역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라이브소셜방송 'ON:通인천'(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1-View'(enews.incheon.go.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페이스북(www.facebook.com/ilyic)
블로그(incheonblog.kr)
유튜브(www.youtube.com/user/icnacityhall)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카카오토리(story.kakao.com/ch/incheoncity)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현금을 내느라 영수증이 없어서 차량번호를 알지 못합니다.

↳ 인천 택시 조합 홈페이지(www.itaxi.or.kr)로 들어가 분실물을 조회하거나 유선(인천 법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466-5101, 인천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578-543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에서 분실물 신고 및 습득물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감사 결과 보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 행정 ⇒ 청렴인천 ⇒ 감사정보공개 경로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어서 복지카드가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장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장애인 전용 일반 택시인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센터(1577-0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자 임주현(60·서구)

'굿모닝인천'은 추억 밟기의 동반자

"섬, 숨이 되다' 책 한 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굿모닝인천 편집실로 아내의 손을 잡고 점잖은 노년의 신사가 찾아왔다. 임주현(60·서구) 어르신은 인천 토박이다. 남구 송의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후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인천에 살았다. 그런 만큼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인천, 그 얼마나 멋진 도시인가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강화 고인돌부터 진지, 개항지 등 역사적인 유적지를 곳곳에 품고 있지요." 어르신은 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인천 일대를 둘러보며 '추억 밟기'를 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여행의 길잡이는 단연 '굿모닝인천'이다. 최근에는 북성포구와 화수부두, 만석부두를 둘러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인천의 참맛을 모르고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처럼 알려진 관광지만 찾아서 아쉽다고 했다. "사람들이 오래된 골목과 동네 등 인천의 옛 모습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굿모닝인천에서 잊혀가는 곳들을 소개해주니, 내 참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따뜻한 격려에 마음이 절로 흐뭇하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과 함께하는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 goodmorning.incheon.go.kr



겨울 한가운데,
여전히 따듯한
아버지의 바다



자유

겨울 바다 앞에 섰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질푸른 바다 빛이 눈에 닿기만 해도 시리다. 하지만 섬의 겨울은 따듯하다. 차디찬 도시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포근함이 섬과 바다 공기 사이를 맴돈다. 선녀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섬. 선재도(仙才島) 바닷가에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눈먼 어부였던 아버지를 그리는 한 남자가 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바다, 그 넓고 깊은 품에 안기다

시간은 참 빠르기도 하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십이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문득 겨울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언제나 한결같은 널따란 품 안에서 먹먹한 가슴 달래며 위로받고 싶다.

영흥도와 대부도 사이, 다리로 이어진 섬 아닌 섬 선재도는 어느 날이고 훌쩍 떠나기 좋다. 섬은 선녀가 그 아름다움에 반해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경치가 수려하다. CNN이 ‘한국의 아름다운 섬 33선’ 가운데 최고로 선정하면서 비밀스러운 섬을 세상도 알아버렸다. 섬은 걸어서 한 시간 남짓이면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 아담하지만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해안을 따라 곳곳에 비경이 숨어있다. 섬으로 가는 길, 선재대교를 건너면 바로 왼편 당산나무 고개 너머로

작은 동네가 나온다. 당너머 마을이다.

이 마을 바닷가는 어느 따뜻한 나라의 해변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 모래 결이 보드랍고 물빛이 맑다. 모래사장 한편에 바람결 따라 일렁이는 자메이카 국기도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바다 건너에는 목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다. 동그란 바가지를 물 위에 붓듯 올려놓은 듯 앙증맞은 이 섬은 하루 두 번 금빛 용단을 깔고 제 품을 연다.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는 운명의 끈으로 묶이듯 4대 짝 살아온 한 남자가 있다.

섬과 눈먼 아버지를 사진에 담다, 그리고 사랑하다

자우(慈雨), 본디 이름은 김연용. 그는 선재도를 찍는 마흔 살의 사진작가다. 그의 이름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자신의 사진이 세상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길, 그는 소망한다.

▶ 지금은 아버지를 따라 저세상에 있는 ‘바다’는 맹인 안내견으로 사랑 받는 골든 리트리버의 혼혈이었다. 운명 같았다.
▼ 사진은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끈끈한 연결 고리였다.



자우



자우



눈먼 아버지가 바라보던 유일한 세상인 선재도 앞바다를 아들은 ‘아버지의 바다’라고 부른다.

그는 눈먼 어부였던 아버지를 3년간 따라다니며 모습을 뷰 파인더에 담았다. 그리고 2003년 포토에세이 ‘아버지의 바다’를 세상에 내놓았다. 목수이자 대장장이, 뿔튀기 장수, 운전사였던 아버지는 지병으로 시력을 잃고 어부가 되었다. 섬에서 나고 살았지만 생전 갯일을 할 줄 모르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그가 지팡이 끝 쇠갈고리 하나에 몸을 맡기고 검은 바다 한가운데로 몸을 던졌다. 오로지 햇살과 바람의 감촉에 의지해 우럭, 농어, 망둥이를 낚아냈다. 눈먼 아버지에게 바다는 삶의 전부가 되었다.

자우가 처음 카메라를 손에 든 건, 아버지의 자취를 세상에 남기고 싶어서였다.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와 섬을 담은 작업에 매혹되었다.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역시 아버지와 같은 어부의 삶을 살기에 이르렀다.

삶의 향기로 채워진 ‘바다 향기’

“아버지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 험한 날씨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 없을 때면, 아버지는 몹시도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바다에 나간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우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의 눈이 되어 드리기를 위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다. ‘바다향기’. 이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들이 머물던 보금자리이자 삶의 터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투박하고 촌스러운 횡집에서 세련된 감성의 레스토랑으로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복슬강아지 '보람'이가 반갑게 맞이하는 바다향기는 이국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상의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곳이 '치유의 공간'이 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가게 곁 작은 텃밭에는 초록빛 허브와 채소가 싱그럽게 자란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들이 담은 아버지의 기록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가슴이 저릿해진다. 그가 먼 나라에서 가져온 여행의 기억들도 시선을 붙잡는다. 마치 작은 갤러리 같다. 카페 밖에는 바다를 향해 품을 활짝 연 노천 테이블과 작은 바가 해변의 낭만을 더욱 무르익게 한다. 그 안에서 잠시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인다. 끝없는 하늘, 그 아래 펼쳐진 바다 그리고 바다, 그 사이 신비롭게 떠 있는 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바다는 여전히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가족과 같은 믿음과 희망으로.



▲ 아버지는 물때를 기다리며 하모니 카를 부르셨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바다는 천천히 길을 내주었다.
 ◀ 선재도 바닷가를 이제 어린 아들이 뛰어놀고 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이제 아들과 지킬 '아버지의 바다'

“아버지가 하늘로 가시고 선재도에 머물 이유를 찾기 힘들었어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겠다 싶어, 멀리 여행도 떠나보았지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고향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던 유일한 세상인 선재도 앞바다를 그는 '아버지의 바다'라고 부른다. 7년 전, 그 바다에 기적처럼, 선재도에서 5대째 살아갈 아이가 태어났다. '바'닷가로 내려온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내아이 '바하'.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이제 아내와 아들딸이 채우고 있다. 가족은 그가 여전히 섬을 지키는 유

일한 이유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한 남자의 '아버지의 바다'를 뒤로하고, 잊고 있던 나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 것',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전한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을 붙잡는다.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포근함이 공기 중에 맴도는 듯하다. 선재도 그 섬의 겨울은 따뜻했다.

찾아가는 길 선재도는 시흥 시화방조제를 건너 안산 대부도를 지나 다시 선재대교를 건너 다다른다. 다리를 지난 후 길 건너편 100미터 전방으로 바다향기 간판이 보인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709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주소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148-2
문의 바다향기 www.bdhg.co.kr, 889-8300

겨울이 깊어질수록, 낭만도 깊어지는 그 바닷가

겨울 바다는 고요하다. 파도만이 흰 물꽃을 일으키며 밀려왔다 가기를 반복할 뿐이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바다는 겨울에야 비로소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겨울이 깊어질수록, 선재도 바닷가의 낭만도 추억도 점점 깊어져만 간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 텃밭 '키친 가든'
▼ BBC도 인정한 바지락 칼국수



갤러리 같은 '바다향기' 내부

금빛 용단 건너 '목섬'으로 선재도 당너머 해변 앞에는 '목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다. 물이 빠지면 섬사람들이 '목데미'라고 부르는 길이 열린다. 사방이 갯벌로 질퍽거리는데 신기하게도 이 섬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모래가 보송보송하게 깔려있다. 혹시라도 발이 빠지지 않을까, 맘씨 고운 섬은 바닷길을 트고 갯벌 한가운데 금빛 용단을 깔아 놓았다.



바다향기의 마스코트 '보람'



쓰레기 예술로 꽃피우는, 자우 팩토리 바닷가 입구에는 김연용 작가의 작업실 '자우 팩토리'가 있다. 버려진 컨테이너로 만든 공간에서 세상의 버려진 것들이 쓸모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마법이 펼쳐진다. 지난봄에는 선재도에서 가장 큰 배였던 '선영호'의 잔해가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근에는 바닷가로 밀려온 통나무가 색색의 옷을 입고 검은 바다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작업실 한쪽 벽면에는 눈먼 어부였던 아버지가 목수였을 때 사용하던 연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아버지를 기리며, 언젠가 눈이 아닌 손으로 보고 느끼는 사진을 전시할 생각이다.

는 모히토 한잔 즐길 여유는 있다. 찬 기운에 오히려 찌들었던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는 듯하다.

이 안은 따스한 봄날, '키친 가든' 바다향기 바로 옆에는 쿠바식 작은 텃밭이 있다. 이름 앞에 '쿠바식'이 붙은 건 쿠바에서 미국의 원조가 끊기고 플랜테이션 농업이 사라지면서 작은 텃밭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 텃밭에는 바다향기의 식탁에 오를 20여 가지 허브와 채소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다. 밖은 찬바람 쌩쌩 부는 한겨울이지만, 이 안은 따스한 봄날. 잠시 틈을 내어 둘러보아도 즐겁다.

'식객'의 무대, 'BBC'도 반한 맛 바다향기는 허영만의 만화 '식객' 제90화 '아버지의 바다' 편의 무대다. 사진을 찍는 어부가 선재도 바다에서 건져 낸 해산물로 요리한 시(sea) 푸드를 맛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영국 BBC 방송국에서 한국의 로컬 푸드를 찾아 방문하기도 했다. 그때 선보인 메뉴가 바지락 칼국수로 반응이 뜨거웠다. 또 이 집에서 '강추'하는 메뉴는 해산물 바비큐로 허브목살, 생선, 수제 소시지 등을 화로에 올려 지글지글 끓여 먹는 맛이 일품이다. 칼국수 7천원, 조개구이는 4만4천원부터, 해산물 바비큐는 1인당 2만7천원이다.

노천 바에서 모히토 한잔 바다향기에는 바다를 향해 품을 활짝 연 노천 테이블과 작은 바가 있다. 겨울 한가운데 공기가 차디차지만, 이 집에서 추천하



자우 팩토리에서 작가 자우

물참엔 낚시 낚감엔 갯놀이 선재도 바닷가는 물차면 푸른 세상이 열리고 물 빠지면 진회색 세상이 끝없이 펼쳐진다. 선재어촌체험마을에 예약하면 조개잡이를 체험할 수 있다. 입장료는 5세 이상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8천원, 2천원을 내면 장화를 빌릴 수 있다. 지난 8월에는 해상낚시터가 생겼다. 이용료는 어른 기준 1만 2천원이다. 문의 www.sunjaefarm.com, 888-3110

바닷가 옆 미술관 '꿈꾸는 섬' 당너머 해변에 바다향기와 나란히 있다. 소박하면서도 감각 있는 미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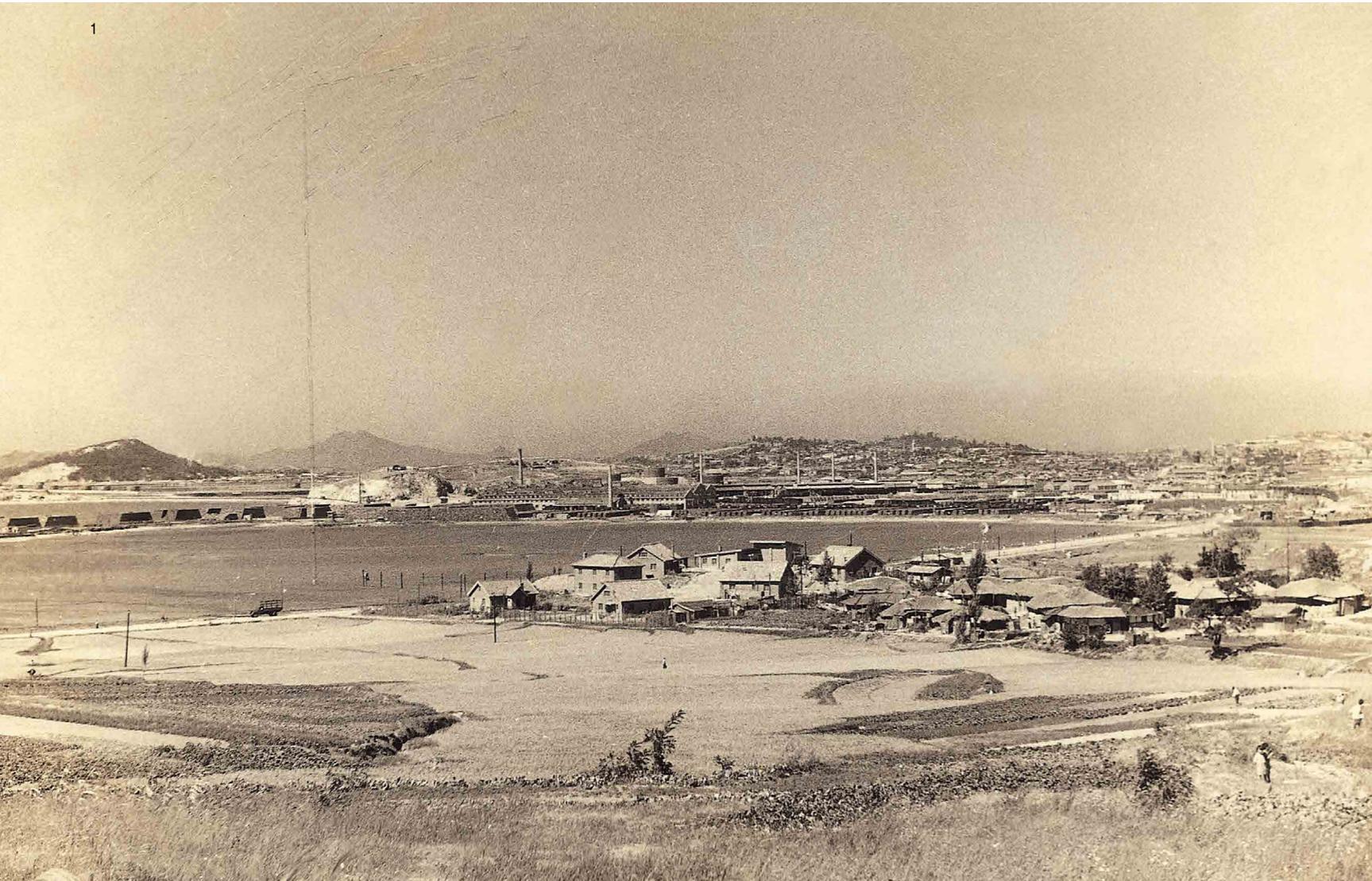
품들을 전시한다. 체험교실에서 아크릴화, 캐리커처, 종이공예 등을 배울 수도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텐트 대여섯 개가 웅기종기 모여 있는데, 실제로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다. 문의 888-0320

서쪽바다 해넘이 한 해의 끝자락, 선녀가 놀던 바닷가에서 하늘을 본다. 서쪽으로 기울던 태양이 갯벌과 바다를 어루만지다 온 세상을 붉게 물들여 버린다. 그 빛을 가슴에 새기며 내일도 힘내어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학익동 해안가에 세운 해외 선교 방송국

1956년에 세워진 학익동 극동방송은 마치 '외국인촌' 같았다. 당시로선 상당히 외진 곳이었던 학익동에 꽤많은 외국인이 모여 살았다. 인천뿐 아니라 국내 어디에서도 외국인을 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이들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방송하러 오면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다. 이들은 인천을 기반으로 중국, 북한, 소련, 몽골 등의 공산권 국가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세운 라디오방송국 HLKX(한국복음주의방송국, 극동방송 전신)에서 일하고자 모인 선교사들이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극동방송 제공



1 초창기 학익동 극동방송 시절 모습. 이곳에 선교사와 엔지니어들을 위한 사택과 송신소가 보인다.
2 학익동 방송국 건물
3 학익동 극동방송 시절 선교사들

사진·강덕병

염분이 있는 바닷가에 안테나 세우면 강력 전파 송출

인천 학익동 588번지에 세워진 HLKX(한국복음주의방송국)는 1956년 12월 23일 중국, 소련 등 북방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방송 전파를 쏘았다. 해외방송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었다. 이 방송국을 세운 사람들은 미국 팀(Team)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이었고 이 중 톰 왓슨(Tom Watson) 선교사가 주도했다.

톰 왓슨은 원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상업방송을 하고 있던 사업가였다. 그런 그가 1950년 한인 유학생 강태국으로부터 “왜 당신은 라디오 방송국을 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한다. 그는 1952년 한국에 들어와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을 준비했다.

왓슨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 방송국을 설립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중국이나 소련까지 방송이 가려면 강력한 전파가 필요했다. 안테나가 염분이 있는 바다 근처에 있으면 전파를 네 배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인천의 갯벌을 빌려 안테나를 세우고 갯벌에 선을 연결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천은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미국에서 서

울보다 유명한 도시였다. 이 유명세는 당시 방송국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방송국 건립을 위해 초창기 인천에 온 선교사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방송국을 건립하는 도중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극동방송 초기 영어 방송을 책임졌던 캐럴 호블랜드(Carrol Hovland) 선교사는 파송될 때 한국을 전쟁이 막 끝난 위험한 곳, 미개한 곳으로 알았다. 사지(死地)로 떠나는 심정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송신소 건물과 사택은 왓슨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손수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비비며 건립했다. 자재와 노동력은 인천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공병부대의 도움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미군부대의 지원으로 송신소 건물과 사택 아홉 동을 지었고, 인천 사람들도 방송국 건립에 힘을 보탰다. 11,12대 시장을 역임한 김정렬 시장은 선교사들에게 학익동 앞의 간석지를 안테나 설립 부지로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줬다.

선교사들의 사택은 5, 60년대 미국 가정집의 양식



4 방송국 앞 갯벌에 송신소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다. 당시 송신소 안테나 맨 꼭대기에 은덩이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5, 6 극동방송 사택의 과거와 현재
7 동양화학 내의 선교사 사택 위성사진
8 학익동 방송국 시절 여 선교사들

을 그대로 본뒀다. 초록색 기와지붕으로 지어진 아담한 단층 양옥으로 정원까지 갖추고 있었다. 내부에는 다락방과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전형적인 서양 가정집의 구조였다.

동네 아이들, 갯벌 안테나 밑동 잘라다 옛 바퀴 먹기도

당시 학익동의 교통 사정은 매우 안 좋았다. 외국 선교사와 엔지니어들은 사택이 있어 괜찮았지만 교통 때문에 내국인들은 방송국에서 일하기를 꺼렸다. 방송국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에 자갈을 깔 도로였고 대중교통은 수인선 협궤열차가 유일했다. 수인선 역 가운데 송도역이 방송사에서 가장 가까운 편이었으나, 열차가 자주 다니지 않았고 너무 멀어 걷는 것도 힘들었다. 선교사나 방송기술자들은 자갈길에 뽕양개 먼지를 뿌리며 달리는 특이하게 생긴 흰색 방송국 차를 타고 다녔고 직원들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다. 방송국 앞 갯벌에 세워진 안테나는 사람들의 궁금증의 대상이었고 이야깃 거리를 만들어 냈다. 갯벌에는 까마득하게 높은 송신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다. 높이가 무려 133m나 되는 철탑 맨 위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은괴가 있었는데, 이 은덩이를 이용해 공산권인 소련까지 전파를 발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의 관심은 소련까지의 전파 발사가 아니라 은괴가 가진 현실적 가치였다. 그 때문에 누군가가 밤중에 은괴를 노리고 기어오르다가 중간에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는, 거의 다 올라갔다 감전되었다는,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은덩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선반 위의 떡은 손대지 못했지만, 갯벌에 묻힌 안테나 밑 동선을 동네 아이들이 잘라다 옛과 바퀴 먹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 전파 송출에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방송국 앞 바닷가, 미군 유류장에서 주안 쪽으로 가는 송유관을 몰래 뚫어 휘발유를 절도해 가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어떤 날은 미군 경비병의 날카로운 위협 총성이 하늘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근대 역사의 숨결 담긴 송신소 건물과 선교사 사택

1958년 12월 5일에 방송국에 부임했던 여 선교사 미스 레스번(Pear Rathbun)은 인천의 첫 인상을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비행기에서 한국 땅을 내려다볼 때 나무가 없어서 이상하게 느껴졌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공항에서 학익동의 방송사까지 랜드로버를 타고 갔는데 길이 무척 험해서 마치 말을 탄 것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국은 참 가난해서 거지와 도둑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옷과 먹을 것을 주변의 주민들에게 자주 나눠 주었습니다.” 또 레스번은 “먹을거리는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통해 구하거나 시장에 나가 직접 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통조림을 가져다 보태기도 했고 빵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취사도구는 작은 곤로가 유일했습니다.”



사진·류재형



사진·강덕병



미스 펄 레스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996년까지 38년 동안 한국에 남아 영어 선교 방송을 담당한 최장기 선교사였다. 1959년 4월 한국에 들어온 후 방송국의 어린이 성경교실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존 쿡 목사는 선교사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들의 본국인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음식은 서양인들의 식성에 맞지 않았지만 차츰 한국 본토 음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고무신을 즐겨 신었습니다.” 또 “선교사들과 인천 시민들은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고, 어린 소녀들이 ‘헬로우’를 외치며 자주 쫓아다녔는데 나는 그들이 영어를 연습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내년이면 방송 60돌을 맞는다. 이 송신소 건물과 사택은 한국과 공산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선교사들의 노고가 배어 있다. 지금은 동양화학의 소유로 되어있다. 한때 동양화학 측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식

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워낙 튼튼하게 잘 건축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사택은 지금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당시 선교사들이 건물을 얼마나 견고하게 짓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동양화학은 이 건물들을 헐고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기독교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방송을 송출한 곳의 역사적 의미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인천 전국체전과 시민의 날 생중계

1956년에서 1967년까지 인천에 방송국이 있었다. 인천시 학익1동 588번지(현 동양화학)에 호출부호 HLKX, 주파수 1230KHz로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이 설립되었다.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 소련, 중국, 몽골, 북한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파를 발사했다. 이 방송국은 1962년 일종의 대북방송인 해병 제1여단의 대적진(對敵陣) 확장방송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방송국 이름은 처음에 한국복음주의방송국으로 시작해 국제복음방송을 거쳐 현재의 극동방송국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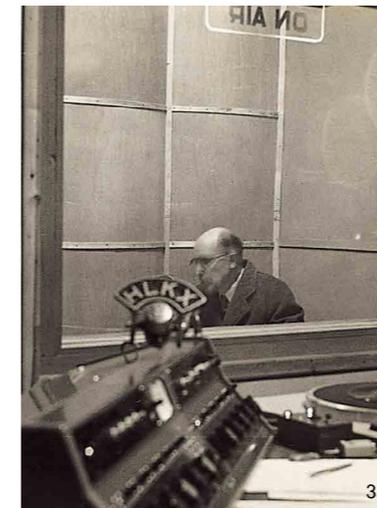
글 유동현 본지 편집장 사진 극동방송 제공



1



- 1 국제복음방송국(현 극동방송)은 64년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개회식, 폐회식을 비롯한 주요 경기를 생중계했다.
- 2 자유공원에 자리 잡은 극동방송 연주소(스튜디오). 마당에 방송 중계차로 활용했던 폴크스바겐 밴이 서 있다.
- 3, 4 초창기 방송국 부스와 구조정실, 간혹 도적이 방송국 화장실로 침입해 녹음기와 턴테이블을 훔쳐 가기도 했다고 한다.



3



공원 나들이객들의 구경거리

한국복음주의방송국(극동방송)은 1956년 12월 23일 화요일 대륙을 향해 첫 전파를 쬐다. 해외방송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이자 인천에서 처음 라디오 전파를 쬐 기념비적인 날이다. 처음에는 학익동 588번지(현 동양화학 내)의 방송국에서 방송과 송출을 하였으나 방송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송신소와 연주소(演奏所)를 분리한다. 1962년 7월 1일 인천 앞바다에 내려다보이는 북성동 3가 8번지(자유공원 석정루 아래)에 991㎡(300평) 규모의 연주소를 마련함으로써 마침내 자유공원 시대를 열었다.

방송국 건물은 설립자이자 초대 방송국장인 왓슨 선교사의 부인 이름인 캐더린 왓슨 기념관으로 명명한다. 연주실(스튜디오) 3개를 비롯해 아나운서 부스, 구조정실, 부조정실, 음반 및 녹음테이프 자료실, 도서실, 사무실 13개 등을 갖췄다. 당시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식 건물이었던 이 방송국은 자유공원 나들이객들의 구경거리 중 하나였다. 비록 마당 안까지는 들어 갈 수 없었으나 'HLKX'라고 커다랗게 쓴 철망 문을 통해 방송국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지역과 함께한 방송국 운영

극동방송은 지역 음악 발전의 요람 역할을 했다. 1960년대 '싱얼롱 와이'라는 건전 노래운동의 창시자인 전석환은 57년 극동방송국에 들어가 한국어 방송 중 '새 찬송 시간'이란 프로그램을 맡았다. 연세대 종교음악과를 졸업하고 율목감리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은 그는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송가를 녹음해서 송출했

5 66년 제1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극동방송은 인천항 도크 기공식 등 인천과 관련한 특별 방송을 마련했다. 맥아더 동상 앞에서 진행된 시민의 날 기념식 생중계 장면
6 66년 극동방송이 주최한 인천지역 교회 학생퀴즈대회 입상자들
7 HLKX 성가단



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방송국 소유 전자오르간의 주법을 익혀 한국과 미국 민요를 편곡해 전국적으로 노래운동을 펼쳤다. 우리나라 합창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윤학원도 이 방송국에서 종교음악의 자양분을 마음껏 흡수했다. 그는 극동방송국 음악과장으로 활동하면서 66년 '팀 라디오 소년합창단'을 창단하고 각 학교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쳤다. 얼마 전까지 인천시립합창단을 지휘하는 등 인천은 물론 국내외 합창 음악계에서 맹활약했다.

인천에 터를 잡은 극동방송은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 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64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 45회 전국체육대회 때 마이크를 들고 현장을 누볐다. 개회식과 폐회식 생중계는 물론 축구, 배구, 권투 등 하루 평균 7시간 총 35시간 경기 실황을 중계했다. 당시 방송사가 보유하고 있던 폴크스바겐 밴에 턴테이블과 콘솔을 설치해 이동스튜디오를 꾸미고 공설운동장 정문 옆에 중계본부를 마련했다. 전화선으로 학익동 송신소와 연결했고 중계방송을 잠시 쉬는 시간에는 현장에서 직접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했다.

선교방송을 주로 하는 극동방송에는 당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없어서 진주 KBS에서 파견된 아나운서의 입을 빌렸고 일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동원하기도 했다. 전 직원이 운동장에 모여 입장객들에게 주간 기본편성표

와 전도지를 나눠주며 극동방송의 존재를 열심히 홍보했다.

1966년 6월 1일 제 2회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인천시 특집방송을 송출했다.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극동방송이 선정한 '인천 베스트 5' 발표, 역대 인천시장 대담,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의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이 방송되었고 오전 10시부터는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된 인천항 제2선거(도크) 기공식을 단독으로 중계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자유공원에서 열린 시민의 날 기념 실황을 현장에서 생중계했다. 그해 7월 4일 경기일보와 제휴해 인천 뉴스를 제공받아 방송하기도 했다. 12월 23일에는 개국 7주년 기념 인천 시내 각 교회의 학생퀴즈대회 당선자에 대한 시상을 거행했다.

1967년 12월 23일 극동방송은 송출안테나를 인천 해안가에 놔둔 채 서울 마포구 상수동 현 위치로 연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오랫동안 인천은 방송 불모지로 남게 된다.

방송국 자리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



자유공원 극동방송 자리는 옛날 개항기 시절 세관장 관사가 있던 곳이다. 인천상륙작전 포화에도 살아남은 이 관사는 1958년에서 1960년 사이 헐린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 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1882년 5월 22일 조선이 서양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체결 장소는 화도진이나 파라도 이스호텔, 혹은 제3의 장소로 알려져 왔다. 몇 년 전 해관사료 수집 연구가인 김성수 씨가 개항 당시 첨부된 제물포지도를 발견하고 인천해관장 관사 위치를 확인하면서 조약 체결 장소가 극동방송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도 고(故) 신태범 박사 등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이곳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장소라고 꾸준히 언급해 왔다. 구한말 외교관으로 활동한 미국인 알렌은 1901년 4월 발표한 한국연대표에서 '조미통상수호조약 체결장소는 인천해관사무사의 관사 터라고 적고 있다. 기존의 '인천제물포각국조계지도'는 건물명 등의 표시 없이 단순히 필지 번호 'D39'로만 기록하고 있어 그동안 아무도 이곳이 사무사 관사 터인지 알 수 없었다. 1882년 조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이 없던 땅으로 조선 정부는 우선 조약 체결을 위해 급하게 천막을 쳐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변에 조선인들이 짓고 살던 허름한 초가집과 무덤이 등성등성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방송이 떠난 후 이 자리는 웨딩홀,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었다.





어느 겨울날, 커피 향 흠날리는 골목에 가다

겨울은 어쩌면 가장 따뜻한 계절인지 모른다.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에. 뜨겁게 달아오른 구들장의 온기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기에. 36.5도 사람의 체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기에. 한 해의 끝에 다다른 어느 추운 겨울날. 오래된 골목에 숨어 있는 카페 문을 살며시 연다. 순간, 밀려드는 훈훈한 공기. 공공 언 두 손에 따스한 찻잔을 쥐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온기가 스며든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덕 자유사진가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氷庫)

한겨울에 찾은, 100년 전 얼음 창고

한겨울 칼바람을 헤치고 중구 개항장 후미진 뒷골목에 들어선다. 우리가 익히 알던 중구청 앞길 개항장 일대가 아니다.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氷庫)'는 그 중심에서 한참 비켜서 있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마주했을 때 예기치 못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갑다. 빙고는 지난여름 신포동 국민은행 가까

운 곳에 문을 열었다. 이 골목 일대는 한 때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선원들이 주로 찾는 술집이 모여 있었다. 골목 모퉁이의 작은 카페이지만 그 가치는 남다르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오래전에 얼음 창고로 쓰던 건물로,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가 깃들어 있지만 카페 분위기는 밝고 화사하다. "최근까지 창고로 방치되다시피 한 곳이었어요. 기둥 없이 벽돌과 나무로 지은 전형



적인 근대식 창고이지요. 옛 형태를 지키면서 현대에 맞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일본에서 건축사를 연구한 이의중(36) 씨는 3년 전 한국으로 와 작업할 도시를 찾던 중 인천과 연을 맺고 이 자리에 정착했다. 그에게 개항의 역사를 품은 인천은 보물 같은 도시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의 생명과 역사가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하나둘 인천 개항장 일대 오래된 건축물의 숨겨진 가치를 찾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카페가 불을 밝힌 후로 어둑어둑하던 동네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인적이 드물고 밤이면 취객들이 휘청거리던 카페 앞 골목길에 주민배 탁구 대회가 열리고 프리마켓이 들어섰다. 담장 안 숨어 있던 이웃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마음을 나누기 시

작했다. 얼마 전에는 일본 NHK 방송국에서 이 아름다운 움직임을 찾아 멀리 바다 건너에서 촬영을 왔다. 빙고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큰길가를 지나 좁은 골목에 이르러서야 작은 간판이 보인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시 찾을 곳을 모르고 스쳐 지나기엔 너무 아쉽다. 이 안에는 지나온 역사와 오늘을 사는 이 순간이 쌓이고 쌓여 새로운 시간으로 흐르고 있기에.

문의 빙고 772-3338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다)
주소 중구 개항로 7-1
가는 길 신포동 국민은행 가까이 전주콩나물국밥집 건물 골목 안에 바로 있다.

★추천 메뉴

향이 깊고 풍부한 에스프레소가 3천800원.
유기농 당근으로 만든 수제 파운드 케이크가 한 조각에 2천800원.



기둥 없이 벽돌과 나무로 지은 전형적인 근대식 창고 건물 ▶



 **미추홀구락부**

조각가가 빛은, 전망 좋은 카페

제물포구락부. 1901년 인천에 살던 외국인들을 위해 만든 사교의 장소로, 지금은 개항의 역사를 품은 스토리텔링박물관으로 거듭났다. 자유공원 아래 제물포구락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추홀구락부'가 있다. 매력이 넘쳐 카페로만 단정하기엔 아쉬운 곳이다.

“제물포구락부가 근대 사람들을 위한 장소였다면, 이곳은 ‘현대’ 사람이 모여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미추홀구락부라고 지었습니다.”

신흥동이 고향인 조각가 김길남 선생은 9년 전 구입한 자유공원 근처 자택을 최근 근사한 카페로 꾸몄다. 엄태웅과 이시영이 출연한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에 나오는 분위기 있는 목공소가 바로 여기다. 그는 미추홀구락부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을 터득하는 ‘즐거움 학교’가 되길 바란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했다. 김 선생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부터 활동한 인천의 저명한 사진작가인 고 김명철 선생이다. 아버지를 기리며 만든 공간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사랑

★추천 메뉴

생두를 로스팅해 내린 하와이안 코나.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다. 9천원.
조각가가 정성껏 빚은 수제 버거와 커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런치메뉴로 8천원.



인천항이 아닌 수도국산이 내려다보이는 '귀한' 풍경



▲ 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의 배경이 된 '미추홀구락부'



▲ 고 김명철 선생의 사진집

방이 되고 카페가 되고 때론 전시장이 되면서 더 향기로워졌다. 김 선생과 마주하던 시간, 겨울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이 카페 문을 두드렸다.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요?' 대부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묻는다. '아 그냥 이야기하고 쉬는 데예요. 차 한잔하면서 놀다 가세요.' 이 일대를 추억하는 나이 지긋한 분들부터 나들이 온 젊은 친구들까지 찾는 이도 다양하다. 이 안에선 누구나 잊고 있던 삶의 소소한 행복

에 젖는다. 박물관 같은 이 카페의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매력. 창밖으로 수도국산을 비롯해 청라, 계양, 부평 주안 일대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펼쳐진다. 대부분 인천항을 바라보는 자유공원 일대 카페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다.

문의 미추홀구락부 817-4521
영업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가는 길 성공회내동교회에서 송학로 19번길을 따라 흥예문 위로 오른다.



100년 선교의 역사에 흐르는 커피 향



 **담동성당 커피**

100년 역사의 종소리 울리는, 예배당 언덕
 용기종기 낮은 집들이 서로를 기댄 담동
 골목을 지나 언덕 위에 오르면 고풍스러
 운 서양식 근대 건축물을 만난다. 1897년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가 지은 '담동성당
 (사적 제287호)'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
 째이자 인천에서 처음 세워진 성당으로 제
 물포에서 인천, 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
 리기까지 100여 년 세월을 비밀스레 안고
 있다.
 성당은 1937년 개축 공사를 거쳐 고딕에
 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붉은 벽돌에 흰색 화강암으로

강조한 몸체에서 고풍이 흐른다. 성당 한
 가운데 돛형의 탑 위에 솟은 십자가는 파
 란 하늘과 대비되어 더 선명하게 빛난다.
 1960년대까지 만해도 매일 정오와 오후 6
 시면 이 성당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
 졌다. 하루 두 번,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귓
 가를 지나 마음에 위안으로 다다랐다.
 성당 마당 한편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작
 은 커피터가 있다. 신도뿐 아니라 동네 어르
 신들과 이 일대를 여행하는 젊은이들도 즐
 겨 찾는다. 주인은 따로 없다. 담동성당의
 신도 정정남(68) 씨를 비롯한 봉사자분들
 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커피를 내린다. 가

격도 착하다. 에스프레소가 한 잔에 1천
 원, 궁중 차와 허브티의 가격도 2천 원을
 넘지 않는다. 값비싼 원두는 아니지만 갖
 볶아 정성스레 내린 커피는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 있다.
 “편하게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차 한잔 시
 키고 온종일 머물다 가셔도 되요. 창밖을
 바라보면 평소 스쳐 지나던 골목골목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따스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 사이로 스며
 드는 겨울 한낮의 햇살을 즐긴다. 서양 종
 교의 '홀씨'가 떨어져 100년 역사로 꽃 핀

인천 중구 일대에는 아름답고 오래된 예
 배당이 많다. 저기, 담동성당과 함께 인천
 의 대표적인 선교지인 내리교회와 성공회
 내동교회가 보인다. 정겨운 옛 도심의 풍
 경이 한겨울 차디찬 공기를 데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인다.

문의 담동성당 762-7613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화요일은 쉼)
 주소 중구 담동 3번지
 가는 길 1호선 동인천역에서 내려 담동사거리 방향



★추천 메뉴
 바리스타가 내린 단돈
 1천원의 착한 에스프레소.
 달콤함으로 추위를 달래는
 고구마라떼와 녹차라떼는 2천원.

2015 인천시 주요 성과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

2015년이 저문다. 이제 올미년을 상징하는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다짐하며 달려왔던 1년을 마무리해야 할 때다. 우리시는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화와 복지 사업을 추진했고, 인천의 경쟁력과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인천만의 가치를 만드는 일에 주력했다. 또 인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8대 전략산업을 세우고 중국 교류 정책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우리시가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성과를 소개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외쳤다

03

전 세계인의 교육축제인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행사였다.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 포럼은 1990년 태국 줌티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15년 만에 열렸다. 포럼에는 유네스코,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여성기구, 유엔난민기구,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 등 세계의 교육발전을 논의하고 이끌어갈 주요인사 1천50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을 담은 '인천선언문'을 채택했고, 참가자들은 2030년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세계 인쇄·출판 문화의 중심지 역할

01

2015년 인천의 또 다른 이름은 '책의 수도'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가 됐고 그 역할은 내년 4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세계 책의 수도가 된 인천은 인천 인문 르네상스를 이끌며 창작 출판을 활성화하고 책 읽는 문화의 생활화,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가 되어 출판, 인쇄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15 대한민국독서대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한국과 인천의 기록문화전, 팔만대장경 이운 행사 등이다. 특히 인천에서 처음으로 열린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동 교육 분야에 IT를 접목한 차별화된 국제도서전이었다.



인천관광공사, 4년 만에 출범 인천 매력을 안팎으로 전파

04

인천관광공사가 통합 4년 만인 2015년 9월 22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정식 출범했다. 출범의 이유는 명백하다. 인천 곳곳에 꿈틀대는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천이 가진 도시적 매력을 안팎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다. 인천관광공사는 마이스(MICE) 산업, 의료관광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등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출범 이후 중국 창저우시와 국제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 개발 합작의향서를 체결했고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국 한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POM(Peace of Mind) 사업을 시범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관광을 알려 내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이란 도시가 인상적인 첫 번째 관문이자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게 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인천에서 '세계문자'를 만난다

02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2020년 인천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인천이 여타 도시와 경험한 속에서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배경은 유구한 문자의 역사와 연관이 깊다. 인천은 인쇄문화의 빛나는 발상지다.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본인 팔만대장경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상정고금예문도 강화에서 제작했다. 인천 송도가 세계문자박물관의 최적지로 선정된 또 다른 이유는 항만, 철도, 도로까지 연계되는 입체적 교통 인프라와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도 한 몫했다. 박물관의 주요시설로는 상설, 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학술지원실이 들어서고, 전시 주제는 문자의 가치를 문명의 설립과 변화라는 흐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정할 예정이다.



균형 재정 달성 노력 재정건전화 원년 토대 마련

05

우리시는 13조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고, 그 결과 올해는 채무액이 감소해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되었다. 또한 올해는 국비 2조853억 원과 보통교부세 4천 307억 원 등 총 2조5천16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정부지원금이다. 인천시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성적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공무원들도 교통분담에 동참해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 31억8천만 원을 반납했다. 시는 2018년까지 실질적인 균형 재정 달성에 목표를 두고 세출구조 조정, 세입확대, 투자유치를 통해 부채 13조원을 9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채무비율을 37%에서 21.2%로 감축할 계획이다.

인-차이나 프로젝트
'인천 안의 중국 시대'를 연다

06

인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다. 130여 년 전 화교들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인연을 기반으로 우리는 중국 친화 도시를 선포하고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안의 중국' 시대라는 큰 비전을 추진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인-차이나 프로젝트는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기반구축 △중국 소비·내수 시장 선점 △상호 교류협력 체제 강화 등 3대 분야 6대 전략 24개 사업이다. 대중국 교류의 기반 구축을 위해 친인친 중국인을 양성해 중국 교류 역량을 강화한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명문대학교와 국제학교를 유치한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출 거점 도시를 선정하는 전략기반을 구축한다. 유커 유치 마케팅도 적극 추진한다. 2016년은 '중국인 한국 방문의 해'로 한류 드라마를 선호하는 점을 활용 '별그대 in Incheon' 같이 인천에서 촬영된 인기 드라마를 중국 관광객 마케팅에 활용한다. 차이나타운, 전통시장, 전통문화전수관 등도 인천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유커를 연결하는 의료관광 사업과 문화 예술인·청소년단체·체육단체 등을 연계하는 문화스포츠 교류,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인천을 찾는 환승객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015 프레지던츠컵
전 세계 갤러리들 인천에 집중

08

2015년 세계의 시선을 인천으로 향하게 했던 2015 프레지던츠컵이 마무리됐다. 아시아 최초로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미국을 비롯한 226개국, 30개 언어로 8억7천만 가구에 생중계될 만큼 세계 골프 팬들과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대회기간 개최지인 송도국제도시를 찾은 갤러리들은 약 10만 명에 달했다. 프레지던츠컵 로고가 찍힌 상품은 물론 지역 호텔업계도 쓸쓸한 재미를 봤다. 인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인천은 프레지던츠컵을 통해 문화와 축제, 관광 등 인천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알려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회로 삼았고, 무엇보다 대회를 통해 '인천'을 널리 알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인천만의 가치창조
'우리는 인천' 자긍심을 높인다

07

2015 우리시의 핵심정책은 '인천만의 가치창조'였다. 잠재된 인천의 가치를 개발하고 키워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는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자라는 취지다. 인천만의 가치창조 사업 대상은 인천의 소중한 자산인 섬, 문화역사, 인물, 공항, 산업,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다.

시는 우선 인천 사랑의 일환으로 '기업체 시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선 한국닛켄을 시작으로 금년에 기업체 120곳에 시기를 게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게양업체를 1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시민에게 묻는 '애인(愛仁)토론회'도 열었다. 지난해 시민원탁토론을 이은 이번 토론회는 '애인'이라는 명칭을 통해 인천 사람, 인천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시는 인천만의 자산인 섬을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천 섬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천에서 삼시세끼, 어촌체험 등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천섬 버킷리스트를 선정하는 등 관광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12월에는 인천을 빛낸 '인천인'을 선정한다. 인천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10개 분야 인천인을 뽑았다. 12월 4일 시상식이 진행됐다.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민의 품에 안긴 '배꼽산 정상'

09

50년간 군부대의 주둔으로 막혀있던 문학산 정상이 개방됐다. 시민의 품에 다시 안긴 날은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이었다. 문학산은 인천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동지로 비류백제 미추홀 왕국의 발상지다. 문학산 정상에 군부대가 정식으로 들어서게 된 것은 1965년이었고, 이때부터 1976년까지 미군 방공포대가 주둔했으며 그 후에는 우리나라 공군부대가 사용했다.

개방된 문학산은 시민들의 편의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각각 전망대와 망원경, 안내판, 벤치가 마련됐고, 문학산을 알리는 표지석이 놓였다. 돌에 새겨진 문학산 글씨는 서예가 심은 전정우 선생의 필체다.

문학산 정상은 아직 조건부로 개방하고 있다. 4월에서 10월까지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월에서 3월까지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정상에 닿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개방을 기점으로 펜스 너머 2단계 지역도 2016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8대 전략 산업'
미래 인천의 먹거리를 책임진다

10

우리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가 될 '8대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8대 전략산업은 한국 경제의 제반 여건과 인천의 잠재력, 경쟁력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시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은 첨단 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이다. 시는 전통 제조업 및 뿌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조속히 바라면서 첨단산업단지과 경제자유구역에 민간투자자와 우수 인재를 유치해 융·복합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이자 동북아의 비즈니스 관광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8대 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 제조업체인 첨단 자동차, 로봇, 항공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R&D 기관, 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정밀 모터를 비롯한 제조업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노장이 이 땅에 뿌리내린 '모노즈쿠리'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한국닛켄. 와카이 슈지(76) 사장이 돋보기안경 너머 예리한 눈빛으로 기계 설계를 살피고 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이지만 노장은 지금도 가장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의 불을 밝힌다. 나이를 잊은 열정은 일본의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고려청자를 좋아해요. 불량률 제로. 저는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한 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예가는 오랜 시간 흠을 빚어도 불의 심판 끝에 불과 30%만 성공을 거두지요.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빚는 장인의 심정이 헤아려진다고나 할까요.”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든다. 그렇게 흘린 땀방울은 오늘날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공작기계 제조업체 한국닛켄을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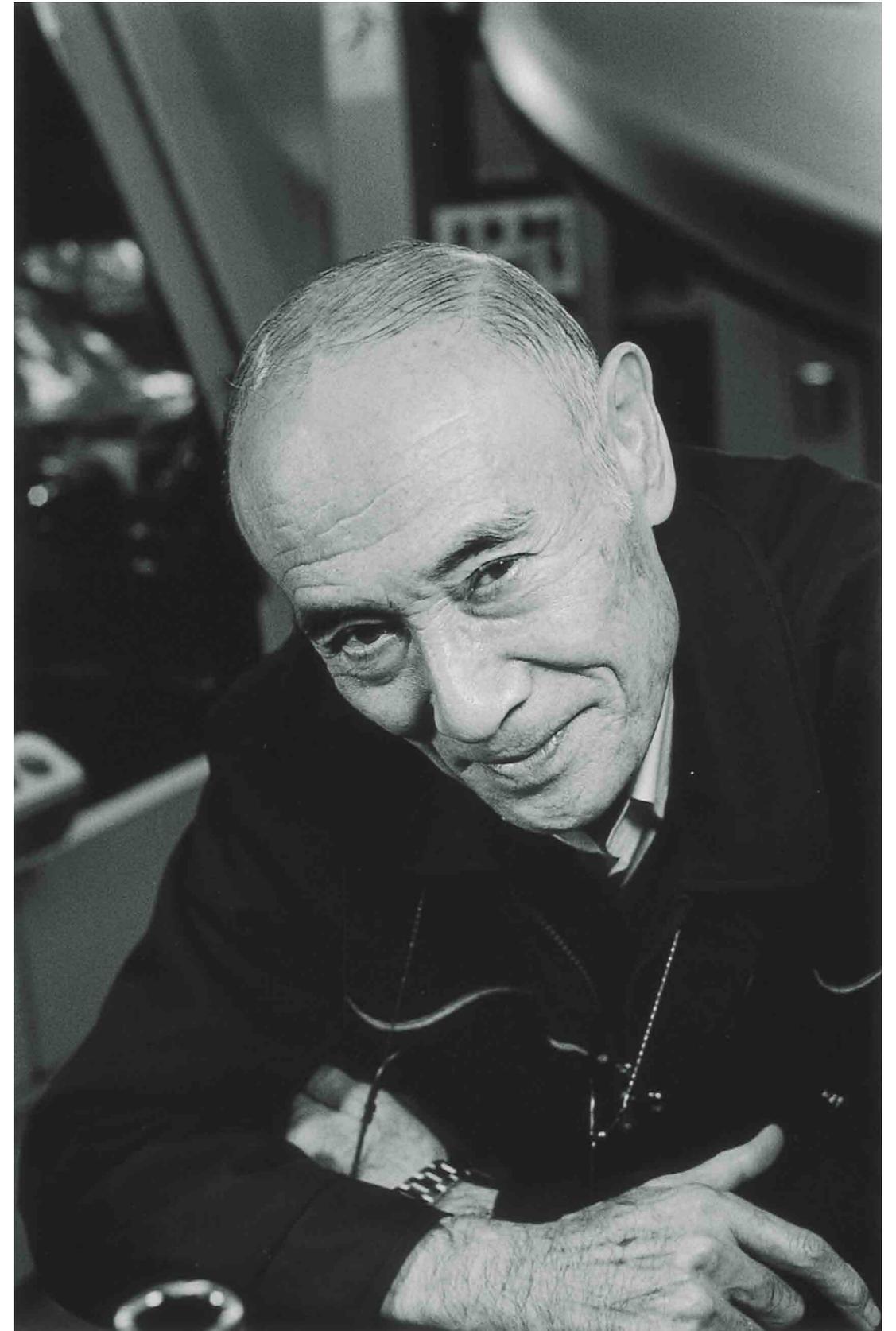
와카이 슈지 사장은 1962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쇠를 만졌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한길을 걸어왔다. 전해져 내려오는 가업이 있었지만 기계를 만드는 일이 더 즐거웠다. 그런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40여 년 전이다. “1974년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기술자를 육성하는 마음으로 세세하게 기계 다루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심이 강하고 힘이 넘쳤어요. 같이 기계로 먹고사는 입장에서 돕고 싶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끌렸고요.” 젊은 시절 그는 공작기계를 팔고 기술을 전하는 영업사원으로 10여 년 넘게 해외를 다녔다. 호주, 유럽 안 가본 나라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국이었다. 그리하여 1987년 동구 만석동에 뿌리내리기 이르렀다. 그는 만석동이 아니었다면 인천에 정착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당시 만석동 일대는 참 살기 어려운 동네였어요. 거대한 쪽방촌이 있었고 주민들은 동일방직과 대우중공업 같은 공장에 다니며

돈벌이를 했지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어요. 당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막 조성됐지만 만석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번 돈은 재투자해 한국에서 쓰겠다는 게 그의 철칙이다. 그가 닛켄 한국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꺼낸 말은 ‘내 회사로 키우겠습니다’였다. 일본의 하청업체가 아닌 독립된 기업으로 한국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싶었다. 내년이면 한국닛켄 창립 30주년이 된다. 그동안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사심 없이 일해왔다. 지난 2007년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사옥을 옮겼지만, 그가 ‘식구’라고 말하는 86명의 직원 대부분이 여전히 만석동에서 이 회사로 출퇴근을 한다.

한국닛켄 입구에는 ‘인천광역시’가 새겨진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벌써 13년 쯤이다. 최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인천 시기 달기’ 인천사랑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만큼 인천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인천은 미래가 있는 도시예요. 바다를 품고 있다는 건, 바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인천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상전벽해처럼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다 위로 인천대교가 놓이고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지요. 인천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고국이 그리지는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인천이 아닌 다른 도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01년 한국인 아내를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는 그를 위로하는 한국인의 정에 감동했다. ‘아, 내가 인천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일본 사정에 아주 어두운 사람이에요. 내 있을 곳은 바로 여기 인천입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에 뿌리내리겠다는, 이 남자의 말이 왠지 전혀 낯설지가 않다.



신식 풍물 오르내리던 경인가도

살짝 발만 들어도 풍경은 달리 보인다.
 까치밭을 하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나
 지형이 눈에 들어온다. 평지에서 바라보던
 거리와 동네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성은 너무 멀고 헬리캠(helicam)이나
 드론(drone)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올라갔다.
 건물 옥상이나 교회 종탑에 올라 인천을
 굽어보았다. 그 정도 높이임에도 인천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번 호에서는 경동 예지요양원(구 상업은행)
 옥상에서 경동 사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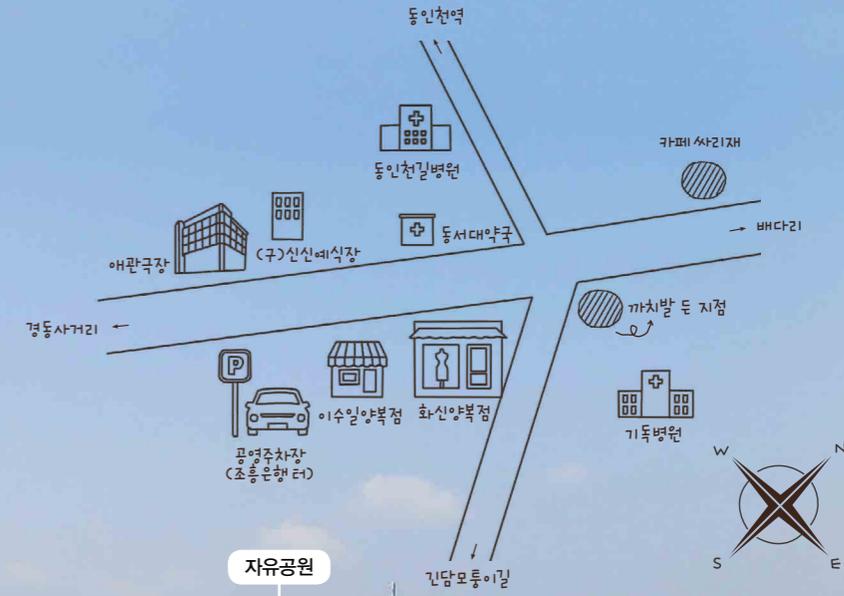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

- ① 답동성당 ② 조흥은행 터 ③ 양복점 거리
- ④ 동서대약국 ⑤ 애관극장 ⑥ 신신예식장



까치밭을 든 지점 | 경동 예지요양원(구 상업은행) (중구 개항로 82)

일제강점기에 중구 해안동, 향동 등에 있던 은행들은 광복 후 새로운
 중심지 경동으로 옮겨 왔다. 사람 쫓아 돈 따라 이주했다. 향동에 있
 던 상업은행은 1956년 12월 20일 인천의 최고 상권이었던 기독교병원
 입구에 건물을 새로 짓고 이주했다. 지역이 쇠퇴하자 은행은 다시 그
 곳을 떠났고 고풍스러웠던 건물은 할라고 그 자리에 7층짜리 요양병
 원(경동빌딩)이 들어섰다.



① 화살표 위로 따라가기

②

③

④ ⑤

⑥

경동(京洞)은 '경성(서울) 가는 길목에 있던 동네'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사람들은 경동과 출소부터 배다리 앞 대진침대(옛 서울은행)까지의 길을 흔히 씨리제(丑峴·축현) 길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완만한 고갯길이지만 옛날에는 경사가 가팔라서 우마차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1913년과 17년 두 차례 언덕을 깎아내면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 경인철도가 운행되기 전 제물포항에 내린 이방인들은 경성을 가려면 마부를 앞세우고 이 길로 들어서야 했다. 흔히 이 길을 '경인가도'라고 불렀다. 그들 붓짐에 함께 실려 온 온갖 개화 양품이 이 길가에서 거래되면서 개항 이후 1990년대 초까지 최신 유행을 이끌어가던 인천 최대의 중심가이자 변화가였다.

① **담동성당** : 파리 외방선교회는 1889년 7월 1일 인천 지역 첫 번째 본당인 제물포본당(현 담동성당)을 세운다. 담동성당은 1896년에 지은 옛 성당을 그대로 두고 외곽을 정면에 3개의 종탑이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확장 개축해 1937년 현재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6·25전쟁 때 일부 훼손되었지만 수많은 함포 사격에도 끄떡없이 버텼다. 1980년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했고 1981년 국가 지정 사적지 제287호로 지정됐다. 큰길가 쪽 가톨릭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멀리서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었다. 몇년 전 담동성당 성역화사업(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회관의 철거가 거론되기도 했다.



1 수차례 외관이 바뀐 끝에 1937년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담동성당. 중국에서 넘어 온 석공들이 돌을 깎아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 1980년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했다.
 2 지금은 사라져 터만 남은 조흥은행 인천지점
 3 한창때는 영화를 보기 전에 양복점 광고 몇 개를 봐야 할 정도로 경동에는 많은 양복점이 있었다.
 4 광복 이듬해 1946년에 문을 연 동서대약국의 초창기 모습. 현재 약국 간판에도 새겨져 있다.
 5 한창 전성기 때의 신신예식장 야외 촬영장. 6,70년대에는 이 예식장 일정에 따라 결혼 날짜를 잡기도 했다(심현빈 씨 사진 제공)
 6 1960년 재건축한 애관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갖고 있었다.

③ **양복점 거리** : 번성했던 시절 경동거리에는 양복점이 줄지어 있었다. 한미라사, 김테일러, 화신양복점, 서울라사, 잉글랜드양복점, 자유라사, 신라라사, 백양테일러, 대흥양복점, 월드양복점, 현대라사 등 한창 때는 30여 개의 양복점이 성업했다. 이 즈음 인천 극장의 영화 예고편 앞에는 양복점 광고를 몇 개씩 붙였다. 멋쟁이 신사들이 한 벌 짝 빼입고 활보하던 거리에서 양복점 간판을 보기가 이제는 힘들어졌다.



④ **동서대약국** : 기독교원 주변은 한때 인천의 의료타운이라 할 만큼 김내과, 이이비인후과 등 크고 작은 십 수 개의 개인의원들이 있었다. 그 덕에 약국들도 덩달아 문턱이 낮았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람들과 인근 김포, 강화, 옹진 섬 주민들이 시내를 방문한 김에 약을 박스나 봉지째로 사 가곤 했다. 그중 대표적인 약국이 'since 1946' 이란 글자와 함께 옛 모습의 사진이 새겨진 간판을 단 동서대약국이었다. 이 약국은 70년 동안 한자리에서 약을 팔았다. 옛 주인은 미국으로 이민가고 지금은 이 집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⑤ **신신예식장** : 애관극장 뒤 언덕에는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신신예식장이 있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르려면 비어 있는 날에 맞춰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었다. '신신컨벤션웨딩홀'로 바꾸면서 신세대의 마음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쓸려가는 세월에는 버틸 수가 없었다. 3년 전 모 대학교에서 이 건물을 노인요양원으로 개조해 운영하고 있다. 우아했던 건물은 여러 차례 증축을 통해 옛 모습이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단체사진을 찍었던 정원의 흔적과 신랑신부가 새 출발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경동 쪽으로 난 옛 계단 출입문은 그대로다.

⑥ **애관극장** : 인천에 와서 돈을 많이 번 부산 출신 정치국은 1895년 창고를 개조해 '협률사(協律社)'라는 극장을 꾸렸다. 이 극장은 1907년에 개관한 종로의 단성사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섰다. 이 극장이 후에 축항사(築港署)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15년 무렵 다시 애관(愛館)으로 개명되었다. 6.25전쟁 중에 소실되었다가 1960년 9월에 재건축한 애관극장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이었다. 애관극장에서 당대 스타였던 신성일과 엄앵란이 무대 인사를 하던 날 경동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여전히 영사기를 힘겹게 돌리며 5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1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메시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010-9016-6579

2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청소년과 함께 공연하는 '하얀 동그라미 재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오후 1시(1일~4일)
오후 3시(5일~6일)
☎ 420-2790

4 춤이 말한다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공연 시작 10분 전 입실
☎ 899-1516, 7

5 송년음악회 'The Best 윤복희 & 최백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7시
R석 6만원, S석 5만원, 시야 장애석 4만원
☎ 500-2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5일)
오전 11시, 오후 2시(6일)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 1544-3901

9 2015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 070-7538-5303

11 2015 경인방송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830-0652

12 이은결 MAGIC & ILLUSION-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12일)
오후 2시, 6시(13일)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 1566-6551

**2015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 070-8680-8477

**삼대가 노는 가족파티
'2015 굿바이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 580-1135

13 Four Seasons Jazz Concert(재즈보컬
리스트 임경은과 재즈피아니스트 조운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예매 2만5천원, 현매 3만5천원
☎ 070-8779-2646

16 2015 커피콘서트12
전제덕 '나의 하모니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17 인천시립합창단
제148회 정기연주회 '노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1만원
☎ 1588-2341

아름다운 추가열 콘서트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무료
☎ 899-1516, 7

**품격 살롱 스테이지
커피 향 가득 '브런치 콘서트'**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2만원
☎ 580-1163

1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50회 정기연주회
Last Symphony Series II
'베토벤, 마지막 교향곡'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19 보육 교직원과 함께하는 자선 송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 010-5046-6154

이자람의 판소리 '역척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18일)
오후 5시(19일)
전석 5만원
☎ 1588-2341

**판타지 발레전막
'호두까기 인형'**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 580-1198

20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 발표회
연수문화원 소극장
오후 3시
무료
☎ 821-6229

23 발레 '호두까기 인형'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
오후 7시
공연 시작 10분 전 입실
☎ 899-1516, 7

연극 '보잉보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3~31일 공연(28일 제외, 시간은 별도 문의)
전석 3만원
☎ 1544-3901

24 인천오페라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라보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15만원,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429-0248

29 2015 스칼라 송년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888-9911

31 인천시립교향악단 2015 제야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 1588-2341

블루지 60's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12월 3~27일

**이달의
展**



11월 21일 ~ 12월 3일	연수문화원 창작동아리 기획전 '예술에 물들다' 연수문화원 어린이미술관
12월 2일 ~ 12월 14일	황다연·김푸르나, 썬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2월 2일 ~ 12월 14일	최윤정 10회 개인전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12월 4일 ~ 12월 10일	수험생을 위한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6일 ~ 12월 17일	중국 황실 문물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 전시실
12월 11일 ~ 12월 17일	한국문화연구원 인천초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2월 11일 ~ 12월 17일	제18회 수요사생회 정기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17일 ~ 12월 30일	제8회 휴과 사람들 정기 회원전(휴을 통한 탄생)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12월 17일 ~ 12월 30일	심명숙, 자연으로 표현하는 바스켓트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
12월 18일 ~ 12월 24일	2015 전시 '선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25일 ~ 12월 31일	제19회 인천광역시 공예인협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아듀 2015! 연말공연

"이번 연말에는 무엇을 하세요." 올해 달력도 달랑 한 장이 남았다.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무뎠지는 감성에 매년 다를 것도 없지만, 이맘때쯤이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좋은 연말 공연 한 편으로 한 해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희망 찬 내일을 맞이하자.



남녀노소 하나 되는 훈훈한 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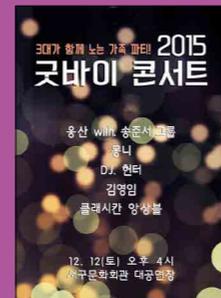
불후의 명곡 전설의 주인공, 남녀노소 세대 불문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예고 브릿지와 세대를 넘나드는 무대. 매해 최고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꾸미는 송년음악회 'The Best 공감콘서트'는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로 4050세대에게는 추억을, 2030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최근 불후의 명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윤복희와 최백호가 무대 위에서 세대적 공감을 이끌어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할 것이다.

송년음악회 'The Best 윤복희&최백호'

일정 12월 5일(토) 오후 7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R석 6만원, S석 5만원, 시야 장애석 4만원
문의 500-2000

2015년 마무리는 온 가족이 함께

서구문화회관이 작년 뮤지컬 갈라 콘서트에 이어 올해도 관객을 위한 연말 선물을 준비했다. 2015 '굿바이 콘서트'에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클래식부터 '웅산'의 재즈, '몽니'의 모던 록, '김영임'의 창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선사하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 한해 남아있던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공연이 주는 감동으로 다가올 2016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2015 굿바이 콘서트

일정 12월 12일(토) 오후 4시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580-1135



하모니카 선율로 물드는 연말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두 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ee Concert)다. 전석 1만 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커피콘서트만의 매력. 한 뼉 하모니카 하나로 유일무이한 음악인이 된 전제덕이 그의 밴드와 함께 속삭이듯 감미롭고, 몰아치듯 터져 나오는 음악을 연주한다. 다양한 악기의 협연 속에서 하모니카의 독자성을 증명했던 한국 최초의 뮤지션답게 재즈, 퓨전, 라틴, 소울,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무리없는 음악세계를 보여준다. 감동으로 시작해 탄성으로 끝나는 시간을 약속한다.

커피콘서트XII 전제덕 '나의 하모니카'

일정 12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1만5천원
문의 1588-2341

인천 무용계 별들로 빛나는, 마지막 달

인천시립무용단의 제27회 I-Dance '인천을 빛낸 별들'은 무용을 사랑하는 인천 시민이 직접 만들어서 무대에 올리는 특별한 공연으로 기획했다. 무용 꿈나무들의 무대와 무용교실을 통해 춤의 맛을 배워가는 주부들의 무대, 그리고 지역 대학 학생들까지 다양한 참가자의 열정으로 가득한 무대가 될 것이다. '인천을 빛낸 별들'은 인천 출신 및 인천에 거주하는 무용 전공 학생들 중 전국 규모의 각종 무용콩쿠르 및 대콩쿠르 입상자를 추천, 선발하여 한 무대에 선보이는 전통 있는 기획공연이다. 올 연말, 뜨거운 무대 위에서 인천 무용계 미래의 주역들을 만나보길 바란다.

인천시립무용단 I-Dance

'인천을 빛낸 별들'
일정 12월 9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전석 5천원
문의 1588-2341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환상여행

'호두까기 인형'은 호프만의 동화를 바탕으로, 차이코프스키가 곡을 쓰고 마리우스 뽀띠빠가 대본을 구성하고 안무 한 2막 발레다. 동화 같은 즐거움 속에 완숙한 춤을 녹여내어 해마다 겨울철이면 세계 유명 발레단이 앞다투어 무대에 오른다. 2015년의 끝자락, 아름다운 동화 속으로 낭만적인 여행을 떠나보자.

호두까기 인형

일정 12월 19일(토) 오후 5시
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문의 580-1198



바흐, 예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다

인천시립합창단이 이번 크리스마스 연주를 위해 선택한 레퍼토리는 바흐의 마니피캤과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바흐의 마니피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노래로, 바흐가 축제 분위기를 내는 금관악기를 사용해 기쁨을 표현한 곡이다. 이번 연주는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바흐 솔리스트'의 반주로 스타일적인 요소를 고려해 훌륭한 연주가 기대된다. 2부는 인천 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친근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음악적 깊이와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인천시립합창단의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노엘'

일정 12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1588-2341



우리 삶은 '노마드(Nomad)'다

유지우사진전 '컬러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여행자들의 로망이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커피의 주산지이고, 문명화가 덜 된 곳이라고 말한다. 문명화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는 드넓은 대륙이다. 이곳은 자기 전부터 중압감이 보통이 아니다. 황열병 주사와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기 위해 국립의료원부터 내원해야 한다.

황톳길을 트럭으로 달리다 보면, 이곳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땅임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밤하늘에 빛나던 별과 은하수가 그리는 곳이다. 그것만으로도 여행의 고단함을 보상받기에 충분했다.

사진은 사진다워야 한다. 때론 작품성보다 기록성이 두드러져도 진실만은 제대로 포착돼 있었으면 한다.

오늘도 배낭을 메고 떠날 준비를 한다. 우리 삶은 '노마드(Nomad)'다.

'컬러 오브 아프리카' 유지우사진전

2015년 12월 1~31일, 갤러리 카페 빙카
 남구 송의동 60-34 빙카 ☎429-0500

사할린 한인의 이산, 그 망향가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러시아 사할린 현지로부터 유물을 대여받아 전시하는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특별전을 이달 31일까지 개최한다. 이 전시는 광복 70주년과 한·러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전시다.

글 연창호 한국이민사박물관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동원돼 사할린에 배치된 사할린 한인들은 해방을 맞았으나 일본, 소련은 물론 조국의 무관심 속에서 타향에 방치됐다. 귀국의 꿈을 위해 소련 국적을 거부하고 무국적자로 남은 한인들은 그곳에서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고국으로 귀국하고자 애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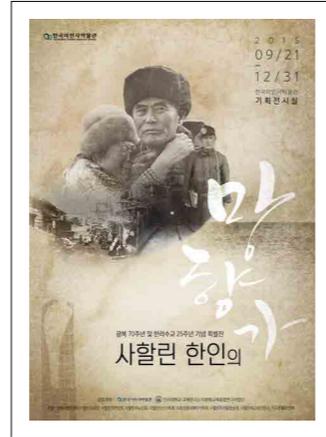
이 전시를 관람하면 사할린 한인의 이주 역사가 반복되는 이산이 특징이자 현재에도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제 동원되어 고향의 가족들과 첫 번째 이산을 했고, 패망을 목전에 둔 일제가 일본 본토인 규슈 지방으로 한인 3천여 명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사할린의 가족과 두 번째 이산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현재 1945년 이전 출생자와 배우자에 한정된 영주귀국으로 4천300여 1세대가 가족과 헤어져 현재 세 번째 이산을 겪고 있다. 현대사에서 이산의 아픔으로 점철된 보기 드문 장소가 사할린이다.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특별전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이산의 시작, 강제동원'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강제동원의 배경과 현황, 사할린 지역 탄광배치 현황과 시네고르스크 탄광의 유물을 통해 첫 번째 이산의 고통을 연출하고, 이중 징용 피해자 유가족 회의 활동을 통해 두 번째 이산의 과정을 조명한다.

제2부 '민족 정체성 지켜온 한인들의 모습'

무국적자로서 힘든 삶 속에서 모국어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노력을 알 수 있도록 각종 유물을 전시한다. 한인들은 90% 이상이 남한 출신으로 귀국을 위해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았다. 사할린 선주민은 중앙아시아에서 파견된 고려인들을 큰땅백이, 북한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을 파견 노무자라 부르며 반목과 화합을 반복하며 성장하였다. 무국적 한인들은 같은 지역출신끼리 또는 같은 성씨끼리 계를 조직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민족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조선학교를



설립했다. 1963년 조선학교가 폐쇄된 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글교육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제3부 '귀국을 위한 노력'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한인들은 모국의 무관심과 소련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귀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박노학은 '사할린 억류귀환 한국인회'를 결성하고 '귀국희망자 명부'를 작성해 평생토록 한인의 귀국을 위해 앞장섰다. 일본인 변호사 다카기 겐이치는 일본의 양심세력과 함께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 귀국과 보상을 요구하는 세 차례의 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제4부 '영주귀국, 그리고 또 다른 이산'

현재 4천300여 사할린 한인들이 국내 22곳의 시설에 영주 귀국하여 정착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와 그 배우자, 장애를 가진 자녀만 영주 귀국이 가능해 사랑하는 사할린의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산을 만들었다. 인천의 남동 사할린 센터 사할린 경로당에 정착한 12명의 생애사와 인터뷰 영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특별전

장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기간 : 12월 31일까지



1 해방 직후 코르사코프 전경 2 유즈모레 사할린 붉은별 악극단(우리말TV방송 국 소장) 3 1991년 시작된 영주 귀국으로 헤어지게 된 사할린 한인 부부

상을 통해 세 번째 이산을 경험하고 있는 영주 귀국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제5부 '친구들'

사할린 한인의 이주사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다. 사할린에는 '사할린 경제법률 및 정보화대학'과 '포로나이스크 박물관'이 있다.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다문화융합 연구사업단'이 영주귀국자들의 삶을 연구하며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와 '지구촌 동포연대' 등이 사할린 한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중국 주요 도시서 세일즈 외교

우리는 중국 주요도시와의 관광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고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 원난성에서는 리지형(李紀恒) 당서기 등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둥성에서는 인천과 함께 한·중 자유 무역협정(FTA) 시범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웨이하이(威海)시 시장을 예방해 양 도시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인천 중소기업의 대중국 판로개척과 인천-웨이하이간 전자상거래 진출, 컨테이너 노선 신설 협약 등을 체결했다. 시는 웨이하이시와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건의 협약식이 있었다.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과 산둥 수출입유한공사는 전자상거래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설명회를 열고 현지 여행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마지막 일정으로 칭다오시를 방문 칭다오의 대표기업이자 중국의 가전왕국으로 통하는 하이얼을 시찰했다. 또한 인

천상공회회의소와 함께 중국국제상회 칭다오시상회를 방문해 인천기업과의 무역촉진 및 실리적 경제협력 등에 상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시 중국투자담당관실 ☎458-7294



내년 초호화 유람선 입항 최대 기록할 듯



내년 인천항에 입항하는 초호화 유람선(크루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내년에 크루즈 18척이 총 131차례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55차례 인천항에 입항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3년 95차례 크루즈가 인천항에 들어온 최고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항 입항 크루즈 가운데 최대 규모인 16만7천급 초대형 크루즈 '퀸텀 오브 더 시즈호'가 눈에 띈다. 퀸텀 오브 더 시즈호의 쌍둥이 선박인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와 함께 내년 한 해 총 26차례 인천항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 두 척의 크루즈는 한 번 입항할 때마다 4천800여 명의 관광객을 싣고 온다. 코스타크루즈 소속 11만급 '코스타 세레나호'는 중국 상하이~제주~인천을 매주 1차례 정기 운항하며 인천항에 총 46차례 입항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항만공사 ☎890-8000

우리시와 어린이재단 인천본부가 지난달 24일 시청에서 산타원정대 출범식을 열고 산타클로스 추천 릴레이를 시작했다. 산타원정대는 첫 번째 산타가 다른 2명의 산타를 추천하고 이후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을 이어가 산타 5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산타로 추천받은 이는 월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또는 10만 원 이상 일시 후원 중 하나를 선택해 후원금을 어린이재단에 쾌척하게 된다. 시와 어린이재단은 산타의 후원으로 성탄절 선물비용 1억 원을 모아 인천 저소득 가정 어린이 1천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선물 전달식은 이달 21일 오후 2시 20분 산타원정대·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청에서 열린다. 선물은 어린이 가정 또는 협력시설로 직접 전달된다. 1호 산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명됐다. 문의 어린이 재단 인천본부 ☎875-7010, 8010

저소득가정 어린이 선물 증정, 산타원정대 출범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지역 선도사업인 을왕산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을왕산 일대 61만6천㎡(단위지구명·용유·을왕산 파크52)를 개발할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 해당 부지는 인천의 관광명소인 을왕리해수욕장,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을 박물관, 식물원 등 문화시설 위주의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22일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심사한 뒤 2월 1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8-7083

을왕산 일대 개발사업 참여 민간투자자 공모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의 인천 구간 건설공사가 2004년 말 첫 삽을 뜬 지 11년 만인 다음 달 마무리된다. 우리시는 수인선의 현재 인천 종점인 연수구 송도역부터 중구 인천역까지 7.4km를 연결하는 공사를 이달 마치고 시험운전을 거쳐 내년 2월 27일 개통한다. 송도역~인천역 구간은 인하대역, 송의역, 신평역, 인천역 등 4개 신설 역사를 포함해 모두 지하로 건설됐다. 인천역은 기존의 경인선 인천역 지하에 들어서 수인선과 경인선의 환승역이 된다. 2004년 12월부터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작해 2012년 6월 30일 1단계로 오이도~송도역 구간(13.1km)이 개통됐다. 송도역~인천역이 개통되면 전동차 4개 편성(24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문의 시 광역교통정책관 ☎440-3894

수인선 인천 구간 내년 2월 27일 개통

우리시가 2016년 제14회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지난달 21일 국제체조연맹(FIG)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차기 대회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대회는 2016년 6월 13~19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다. 전 세계 70개국 선수·임원 등 1천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 종목은 남·여 개별, 혼성 2인조, 3인조, 그룹 5인조, 에어로 스텝, 에어로 댄스 등 7개다. 국제체조연맹은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주경기장인 남동체육관과 인근 호텔을 둘러보며 현지 실사를 할 계획이다.

문의 시 체육진흥과 ☎440-4952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 국내 첫 유치





미국 버뱅크시 기념 조형물, 송도에 설치



인천 최초의 외국 자매도시인 미국 버뱅크시의 기념 조형물이 지난달 20일 송도에 설치됐다. 시는 이날 송도 G타워 동편 광장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밥 프루토스 버뱅크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 버뱅크시가 기증한 조형물의 이름은 '춤추는 돌(Dancing Stones)'이다. 2m 높이의 돌 2개는 두 도시의 우호협력을 상징한다. 우리시는 앞서 2011년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해 버뱅크시에 조형물을 기증했다.

1961년 인천시와 자매결연한 버뱅크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20km 떨어져 있다. 인구는 10만 명에 불과하지만 워러브러더스사, 월트디즈니사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본사가 밀집해 세계 미디어의 수도로도 불린다.

문의 시 국제협력관실 ☎440-3212

인천역 새로운 복합역사로 탈바꿈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대체할 새로운 복합역사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우리시는 인천역 일원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받아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절차인 주민 공람도 지난달 16일 시작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뒀. 여러 기능이 한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는 인천역 일원 2만4천693㎡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숙박·업무·판매시설을 둘 수 없어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시 도시재생정책관 ☎440-4504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시 역사자료관은 인천시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강당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제1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65년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출범 50년을 기념하고, '가치를 재정립 할 수 있는 주요 주제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를 중심으로 장소의 정확성과 조약의 본질을 규명하는 방향에서 인천 시민과 함께 답문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노영돈 교수의 '개항기 인천에서 체결된 조약들-조미수호통상조약을 중심으로', 관세청에 근무하는 김성수 주무의 '해관문서에 나타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 등 2가지 주제로 집약되었다.

문의 시 역사자료관 ☎440-8383

소방헬기 2대 동시 출동 가능해진다

우리시 소방헬기가 내년부터 2대 동시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소방본부는 그동안 소방헬기 동시출동 시스템 가동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항공인력 정원 승인을 요청해 왔으며 올해 정원 승인이 이뤄져 인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본부는 내년도에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을 채용해 항공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재난은 물론 서해5도 도서지역 항공구조·구급서비스까지 동시 출동체계를 갖추게 돼 소방항공대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소방헬기 운항실적을 살펴보면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에 그동안 소방헬기를 활용한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의 시 소방본부 ☎870-3012

지난 10년간 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던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이하 십정2구역)이 뉴스테이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로 돌파구를 찾아 본격적으로 재개발 전망이다.

우리시는 지난달 11일 부평구 십정2구역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를 갖고,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 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구역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십정2구역은 구역 어디서나 지붕이 헐고 붕괴 우려로 출입이 금지된 건물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구역 전체 주민 2천771가구 중 510가구(18%)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의 시 주거환경정책과 ☎440-3458

뉴스테이로 십정2구역 살린다



인천소방본부가 119 신고접수와 출동지령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방출동 골든타임 확보에 특목히 효과를 보고 있다. 소방본부는 지난 8월부터 각 시·도 비교행정을 통해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신고접수 절차 간소화 작업에 나서 119신고접수부터 출동지령까지 단축계획을 추진해왔다.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분석 결과, 구급출동의 경우 출동지령시간까지는 59.8초로 전년대비 14.6초를 단축했고, 화재출동의 경우는 65.7초로 전년 대비 38초나 단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 단축의 이유는 먼저 신고접수 후 선(先) 출동에 기반을 두었고, 화재 등 재난 유형별 기본출동대의 재정비, 신고지 중심의 최단거리 출동대 편성 등의 추진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의 시 소방본부 ☎870-3012

출동지령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우리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시에 따르면 201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내년 인천시에 지원될 국비는 2조3천340억 원이다.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2015년도 2조853억 원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반영액은 달라지겠지만,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는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국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인천보호병원 건립, 인천신항 개발 등 국가 직접사업 예산이 올해 515억 원에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3천260억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의 시 예산담당관 ☎440-2242

내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전망

인천시민회관 옛터에 대중문화 창작 지원기관인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이 문을 연다. 인천의 문화 중심지였던 시민회관이 철거된 지 15년 만에 대중문화 창작자를 양성하는 공간이 재탄생하게 됐다. 우리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은 지난달 27일 개소식 후 남구 주안동 190-2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넓이 1천237㎡ 규모의 건물 '뜬, 문화창작지대'에 입주한다. 국비와 시비 등 22억원의 건축비로 건립돼 지난달 개관한 '뜬, 문화창작지대' 건물은 인천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결정체를 형상화했다. 인천항·인천공항을 보유한 물류 중심 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수출 상징인 컨테이너를 활용해 건물을 완성했다.

문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50-2000

창작자 보물창고 '인천콘텐츠코리아랩' 문 열어



‘아트센터 인천’ 반쪽 시설 우려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공연·전시시설로 짓겠다고던 ‘아트센터 인천’이 시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애초 구상과 동떨어진 ‘반쪽’ 시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센터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문화단지를 건립해 시에 기증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시가 조달하는 구조다. 2009년 착공한 아트센터는 내년 3월 1단계로 문화단지의 일부인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59석 규모의 콘서트홀을 우선 준공, 개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사랑나눔 장학금 조성활동’ 8년째 지속

인천광역시의회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랑나눔 장학금 조성활동’을 8년째 지속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사랑나눔 장학금 조성활동은 시의회에서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타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선행사례다.

현재 제2기 사랑나눔 장학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모범 학생 18명을 선발하여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0개월간 장학금을 적립하여 2019년 2월에 학생 1인당 670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유권자연맹 소속 모니터단과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달 30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 소속 청바지(청년 이바라) 지방자치)모니터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청년 모니터 단원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의 기회를 주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년 단원들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본회의장에서 의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웠다.

노경수 의장은 “시민이 행복한 정책입안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모니터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중심 행정사무감사 펼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등을 포함한 총 9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교위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시정전반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특히 위원회는 대형 건설사업 현장과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하고 확인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현장에 감사장을 설치하여 감사를 펼쳤다.

이에 따라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웅암사거리 지하차도와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공정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장선, 루원시티 등을 점검했다. 주거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 위해 요소와 대규모 건설현장 등의 그간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미비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요구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국제아동교육도서전 둘러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용덕 위원장을 비롯한 이강호, 김종인, 박승희, 제갈원영 의원 등은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Incheon EduContent Fair 2015)’ 개막식에 참석한 후 100여 개 부스를 관람하였다. ‘교육의 미래를 보다(Autobahn to Future Education)’라는 슬로건으로 아동과 교육, 그리고 IT를 접목한 교육도서 콘텐츠 축제인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은 지난달 12일~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고, 독일, 태국, 싱가포르 등 해외 6개국 18개사와 국내 도서업체 73개사 등 총 7개국에서 91개사가 참가했다. 최용덕 위원장은 “이번 도서전이 인천교육에 IT가 접목되면서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람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일용 의원(동구 제2선거구)과 이도형 의원(계양구 제1선거구)이 제12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유일용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활발한 조례입법과 시정 질문 등 지역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도형 의원은 지역 내 평판, 행정사무감사 수행실적,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수, 조례발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의정대상을 받은 유일용 의원은 “조례입법 등 제도적 시스템 정비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도형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유일용, 이도형 의원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영흥도 및 대부도에서 의원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달 10일 개최한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위원들은 2015 행정사무감사 추진 방향과 감사 정보를 교환하고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연찬회 기간 중 영흥도에 소재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를 방문하여 중앙제어실과 수력, 풍력 및 태양광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지역사회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의원업무 연찬회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부의장은 지난 10월 30일 ‘제15회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에서 광역의정부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박 부의장은 3선 시의원으로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승희 부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오늘문화대상’서 광역의정부 부문 대상



2030년 인구 350만명, 문화와 관광이 꽃 피는 '사람 중심 도시'

우리는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시는 2030년 미래상을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로 설정하고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활성화, 인천 고유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7대 중점 전략을 세웠다.

7대 중점 전략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추진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이다.

2030년 인천시 계획인구는 현재보다 50만명 늘어난 350만명으로 예측됐다. 가구당 인구는 현재 2.60명에서 2.35명으로 줄고 고용률은 현재 63%에서 7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생태하천 복원율은 10%에서 40%로, 평생교육 기관 수는 180개에서 25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은 기정 143만9천 349km²에서 용유·무의 개발계획 2단계 제척 및 왕산마리나 해면부, 무의 슬라이어리조트 해면부, 삼목항, 예단포항 등 어항구역이 추가로 반영되어 138만1천348km²로 변경됐다.

시가화용지는 기정 28만7천997km²에서 2만4천637km² 감소한 26만3천360km²로, 시가화예정용지는 장래 인구 및 경기 전망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기정 12만5천405km²에서 9만2천512km²로 3만2천893km² 감소했다.

보전용지는 기정 102만5천947km²에서 102만5천476km²로 0.471km² 감소했다. 생태하천복원율은 10%에서 40%로, 평생교육 기관 수는 180개에서 25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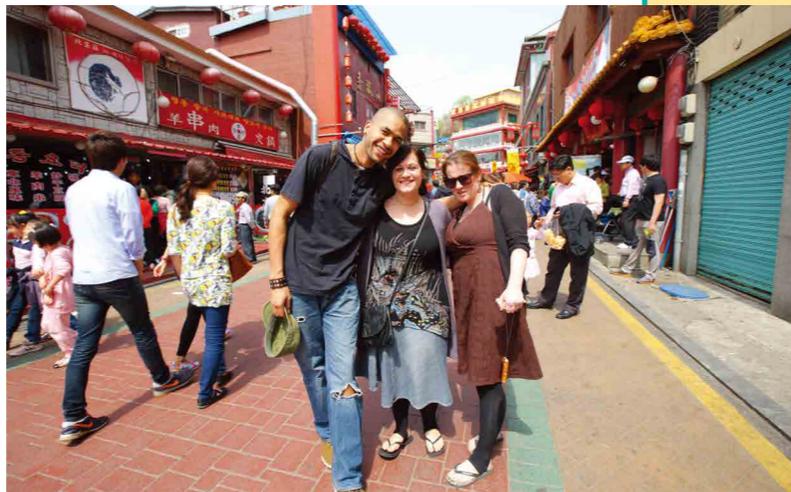
철도망은 경인선 지하화, 인천발 KTX 연결, 서울지하철 9호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생활권

선 인천공항 연장, 서울 7호선 석남·청라 연장, 수도권매립지·검단산업단지 연장 등 대중교통 중심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광역도로망은 남북 3축, 동서4축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공간구조를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4발전축의 다핵형 중심지체계로 설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동인천·구월, 청라·가정, 부평·계양, 송도·연수를 4도심으로 △영종, 소래·논현, 검단을 3부도심으로 △강화, 길상, 오류, 검암, 가좌, 용현, 만수, 서창, 용진을 9지역 중심으로 정했다. 시는 작년 3월 기초조사에 착수한 후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 INFO BOX }

'청소년의 트라우마, 아픔을 딛고 성장을 향해..'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심포지엄 '청소년의 트라우마, 아픔을 딛고 성장을 향해..'를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소년을 이해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역할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 12월 10일(목)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 트라우마 심포지엄(기초강연, 토론탐표 외) 및 청소년 트라우마 연구보고 발표
문의 721-2307

인천 권역 꿈드림 연합 '드림 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 관내 총 9개 꿈드림 센터를 지정했고, 10월에 전체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드림 날다'는 센터 별로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 및 준비하여 한자리에서 끼와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화합의 장입니다.

일시 12월 17일(목) 오후 3시~6시 30분
장소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장수동)
주관 인천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문의 721-2327

역사자료관 인천향토사강좌 개최

인천시 역사자료관에서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제75회 인천향토사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간 12월 7일(월)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사랑방(40석 내외)
 ※ 중구청 뒤 자유공원 아래에 위치
주제 및 강사
 • 주제 : 인천의 인물이야기 ⑥ - 이형상 -
 • 강사 : 이연세(인천고전연구소 소장)
문의 440-8382~3, 773-3498

CJ도너스캠프와 함께하는 인천나눔 캠페인

꿈을 꾸지만 마음껏 꿈을 키워나갈 수 없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선물해주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아이들은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캠페인명 제1회 인천나눔캠페인
기간 12월 20일까지
참여방 ARS, 모바일, 홈페이지, 지로
내용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꿈 키움을 위한 나눔캠페인
모금 홈페이지 www.donorscamp.org/incheon

화교역사관 유물 구입합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한중문화관(화교역사관)에서는 화교 관련 사진, 문헌 등의 유물을 구입합니다. 엄선된 자료는 화교역사관에 전시합니다.

구입대상
 • 개항기~현재 인천 화교 사회 관련 자료
 - 인천 개항장의 청국조계지 관련 실물, 문헌 및 사진 자료
 - 개항기 인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관련된 실물, 문헌 및 사진 자료
 - 근현대 인천 화교 사회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헌 및 사진 자료
 - 근현대 인천 화교 사회의 주요 인물 관련 실물, 문헌 및 사진 자료
 - 근현대 인천 화교의 생업과 관련된 생활민속자료
 - 근현대 인천 화교 사회 관련 실물, 문헌 및 사진 자료
 - 그 외 기타 근현대 인천 화교 사회의 특색을 보여주는 생활민속자료
 • 한중문화관 전시를 위한 중국문화 관련 자료
 - 중국 생활문화와 관련된 실물 자료
 - 중국 건축문화와 관련된 실물 자료
 - 중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예술품
 - 그 외 기타 중국문화의 특색을 보여주는 자료
 ※ 구입대상유물은 화교, 중국 관련 실물자료 수집을 우선으로 함
참가자격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신청기간 12월 2일(수)~12월 8일(화)
접수장소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
문의 760-7868



인천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시민 현장견학 접수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호선 운영을 앞두고 차량운행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현장견학을 실시합니다. 인천 2호선을 미리 타보고 점검하는 혜택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실시시기** 12월 16일(수)
- 대상** 2호선 건설사업 및 차량운행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시민
※ 만 16세 이상 공사현장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시민
- 인원** 선착순 40명
- 견학내용** 인천2호선 차량기지 견학 및 차량시승
- 견학진행**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차량팀
- 견학순서** 종합사령실-226정거장-차량기지-226정거장 (본부-226정거장 버스이동)
- 시간계획** 총 150분 소요
- 신청** 12월 9일(수)까지
- 신청접수**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주소로 신청 (이메일 주소 : k1o2s3@korea.kr)
※ 인터넷 메일신청이 불가능한 분은 FAX(032-440-8793)로 신청
문의 451-2827(담당자 권오성)

수도계량기 동파·동결 예방은 이렇게

12월부터 2월에 걸쳐 수도미터 동파·동결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리 살펴서 겨울철 수도 동파, 동결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 외관상 수도미터 보호통의 뚜껑 부분에 틈새가 있는지
- 보호통 내에 누수가 있거나 지하수 등으로 물이 고여 있는지
- 보호통 내에 보온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건물 입구, 옥상 출입문 등은 잘 닫혀 있는지
- 공사장, 공원, 옥외화장실 등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이 보온재로 덮여 있는지

이렇게 조치합니다

- 수도미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하여 찬 공기를 막습니다.
- 수도미터 보호통 내의 고인 물과 젖은 옷 등은 제거합니다.
- 보온을 위해 젖지 않게 비닐로 감싼 헌옷 등으로 채웁니다.
- 수도미터 보호통의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합니다.
- 다세대 주택 등의 건물 입구, 옥상 주출입문은 동파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닫습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 수도미터가 얼었을 때 헤어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이거나 수건으로 수도관을 감고 위부터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입니다. (토치 등으로 직접 불을 대면 파열이나 화재의 위험)
- 수도미터는 뜨거운 열을 가하면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영하의 날씨가 계속될 때에는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합니다.
- 수도미터의 파손, 고장이나 공지 상에 설치된 보호통(뚜껑 파손 등)이 불량할 때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720-2133

올해 김장은 꼭 수도꼭지 직수로 사용하세요

올해 김장은 꼭 수도꼭지 직수로 사용하세요. 수도물에 녹아있는 잔류 염소와 고무호스에 들어 있는 페놀성분이 반응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므로, 반드시 고무호스 없이 직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720-2200

'점토공예 속 신기한 유물 이야기' 가족 프로그램

검단선사박물관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가족체험 프로그램 '점토공예 속 신기한 유물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함께 작업 하면서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참가대상** 6세~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5가족(20명 내외)
- 참가비** 무료이나, 1인당 5천원의 재료비 별도 부담
- 참가신청** 1월 24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sunsa.incheon.go.kr)를 통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마감
문의 440-6797

미래 상상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인천시 제조 제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제1회 미래 상상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전 개요

- 행사명 : 제1회 미래 상상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12월 9일(수), 8주간
- 평가 : 12월 10일(목)~16일(수)
- 참가대상 : 인천의 제조 제품과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단독 또는 공동 출품 가능(3인 이내), 출품 수 제한 없음
- 공모주제 : 제시된 인천의 제조 완제품을 소재로 하여 각 제품이 20~30년 뒤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 대상제품 : 인천 소재 제조기업 생산 제품
※ 완제품은 최대 3개 내외로 융합하여 아이디어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
문의 723-9808

시민사이버 외국어교육 수료 독려 이벤트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사이버 외국어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외국어 실력 향상과 경품을 동시에 잡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이벤트명** 시민사이버외국어 교육 수료 독려 이벤트
- 참여기간** 12월 1일(화)~18일(금)
- 참여경로**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cyber.incheon.kr)
- 참여대상** 2015년 시민사이버 외국어교육 수료자
- 참여방법** 외국어 과점 수료 후, 이벤트 팝업창을 통해 응모
- 경품내역** 참여자 중 180명 추첨, 모바일문화상품권 지급
문의 440-7674,5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미추홀도서관에서는 12월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에 당신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대상	문의
인천성모병원과 함께하는 100세 시대 건강강좌 알코올과 간질환	인천성모병원 간담도 내과 권정현 교수와 함께하는 간질환 바로 알기	12월 10일(목) 오후 2~3시	전체	440-6662
복스타트 '이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책꾸러미 배부 및 이기들의 오감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책놀이 진행	12월 26일(목) 오전 11~12시	만8개월 이하 영유아 및 부모	440-6648
송도국제기구 도서관 '화요 시네마'	월별 테마영화 상영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전체	851-6651
기증도서 수집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기증도서 수집	상시	전체	440-6656
'청라호수도서관' 목요특강 5회 '오늘도 옷자' (웃음코칭)	웃음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하고 행복한 '나' 만들기	12월 3일(목) 오후4~6시	모든 시민	563-8124

우리에겐 도움이 절실한 400만 이웃이 있습니다

"엄마 안제와?"
패지 주는 할머니와
돌이 사는 일곱살 민수.
오늘처럼 눈오는 날이면
엄마가 더 그롭습니다

민수의 어깨를 감싸주세요
대한민국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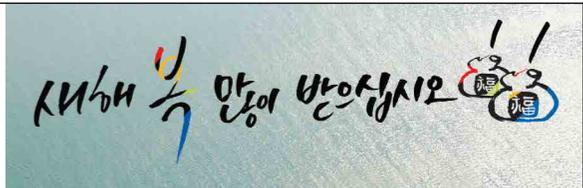
기부상담 032-456-3333
ARS기부 060-700-1210

후원 계좌
신한 100-013-448757
국민 208-01-0505-298
농협 147-01-182301
(계좌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지회)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외국교육진흥원

병신년(丙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시는 2016년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은 '사랑과 전쟁'처럼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삶 속으로 파고들어 존재를 흔드는 누구나의 '사건'이었다. 평범한 주부였던 보영은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그 사랑'의 실체를 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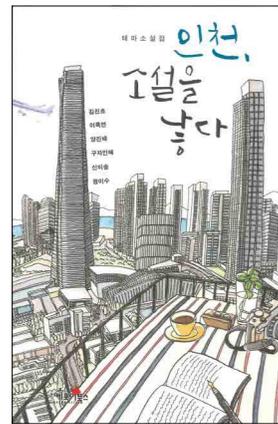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알게 모르게 누구나의 일상 속에서 그 흔적은 발견되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과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다. 보영의 자기 고백인 이 책은, 남편의 잘못을 탓하는 마음으로 쓴 것도, 불륜의 사태를 고발하기 위해 기록한 것도 아니다. 보영은 자신의 경험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나누기 원한다. 나이가 슬픔을 극복한 과정을 보여주며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한다. 결국 소중한 건 '나라면서'.

그 사랑, 누구나 한 번쯤

보영 지음
상상+모색(헤르츠나인) / 13,400원



BOOK



테마 소설집 인천, 소설을 날다

김진초 외
케이이북스 / 14,000원

인천은 개항 이후 많은 부침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바다와 섬, 공항을 끼고 있어 정주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의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하루하루를 노동으로 버텨야 하는 고향을 버린 이들의 삶이 녹아 있는 곳 또한 인천이다. 하지만 이 공간을 다룬 소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인천을 소설을 통해 재조명한 이 소설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인천이란 공간 속에 묻어 있는 흔적들, 숨은 이야기, 삶의 불씨들을 여기 인천에 살고 있는 6명의 여성작가들이 남다른 감성으로 다가가 활활 지펴내고 있다. 김진초, 이목연, 양진채, 구자인혜, 신미송, 정이수 소설가가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9편의 단편소설을 작품집으로 묶었다. 이 작품집은 인천이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지원 받아 인천을 알려나가고자 발간한 소설집이다.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아! 옛날이여'



1950년, 지금은 사라진 소월미도에서

때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1개월하고도 18일 전인 5월 7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완전히 매립되어 없어진 소월미도에서 소풍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야말로 '아! 옛날이여!'입니다. **장명수** 서구 서곶로



장군님과 함께

고 때 한 친구(머리 긴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자유공원에 가서 이별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맥아더 장군도 한 컷 '찰칵'.
조병직 부평구 마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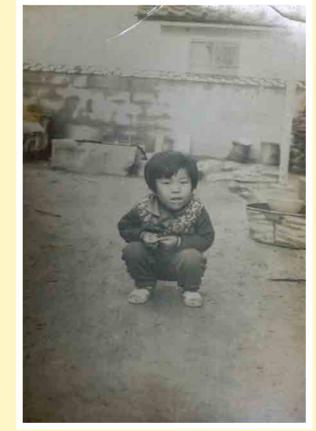
추억이 '퐁퐁'

꼬마는 작전동 집 근처에서 '퐁퐁'을 타며 자주 놀았습니다. 그때는 마치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마냥 즐거웠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놀이기구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날개를 훨훨 달아 주고 있겠지요.
김민석 서울시 마포구



어느 봄날,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구경하고 비행기 앞에서 멋지게 한 컷을 남겼습니다.
박승태 남동구 구월로



마음은 부자였던 그 시절

한때 우리는 모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함께 있기에 늘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너 나 할 것 없이 풍요를 누리는 시대이지만, 그 시절 그 기억은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주안 옛 집, 꼬마였던 시절의 추억 한 컷입니다.
김태영 서구 청라한울로

“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옛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옛 인천'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굿모닝 인천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월호



신년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인천을 품은 책들
니하오 유커 | 부평지하상가
인천 섬 | 운영도
인천 Residence | 수봉다방
민선 6기 공약 실천 | 인천시민 원탁토론 개최
포커스 | 만화로 보는 2015 달라지는 시민생활
까치밭로 본 인천 | ① 동인천북광장 → 수도국산
CULTURE INFO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NEWS BRIEF | 2014 주거복지정책 최우수 기관 선정 외
의정뉴스 |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여 대통령 표창 외
생활정보 | 청소년 활동 돕는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외
인천 사는 이야기 | 문학산에서 바라본 세상 외
모닝커피 한잔 | 송진구 명품전략연구원 원장

2월호



니하오 유커 | 중국 관광객 방문
중국을 만나다 | 광저우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인천의 작은 도서관
인천 이야기 | 갯이부리마을 '굴막' 공동작업장
포커스 | 키워드로 본 2015 주요 사업
다녀오겠습니다 | 세상을 배워 온 여섯 악동
그때 인천 | 인천동 전자상가
화보 | 얼음늪시
까치밭로 본 인천 | ② 송의로터리 → 전도관
내 일 내 길 | 47년 헌책방 운영 이진규 선생
NEWS BRIEF
COUNCIL NEWS
CULTURE INFO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INFO BOX
인천 사는 이야기
이달의 책
모닝 커피 한잔 | 김영승 시인

3월호



화보 | 봄
화보 II |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전자책에서 전자책까지
인천의 섬 |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대청도 해안사구
니하오 유커 | 인천 관광 포인트
인천의 오래된 이웃 | 화교
까치밭로 본 인천 | ③ 신흥동 사거리 → 울목도서관 아래
내 일 내 길 | 가경요양원 광정숙 원장
CULTURE INFO
탐방 | 기업현장 생생투어
NEWS BRIEF
협동조합 소개 | 동그라미협동조합
COUNCIL NEWS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INFO BOX
인천 사는 이야기
이달의 책
모닝 커피 한잔 | 이상재 수필가

4월호



화보 | 백령도 기가 아일랜드 선포
니하오 유커 | 한국 전통문화 공간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책의 수도 의미
개막행사 및 이벤트
다문화 아동 독서지원 서비스
인천의 섬 | 신도·시도·모도
포커스 |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까치밭로 본 인천 | ④ 하버파크호텔 → 자유공원
내 일 내 길 | 40년 시장 사진을 찍은 심영보 씨
CULTURE INFO
NEWS BRIEF
COUNCIL NEWS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이달의 책
모닝 커피 한잔 |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5월호



인천을 걷다 | 강화 고려산 진달래
강화 나들길 '고려궁 성곽길' 탐방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인천 문인들의 흔적을 찾아
니하오 유커 | 송도센트럴공원에서 보내는 하루
중국을 만나다 | 칭다오
포커스 | 2015 세계교육포럼(5.19~5.22)
내 일 내 길 | 남사당놀이 전수교육자 지운하 명인
까치밭로 본 인천 | ⑤ 백운역 → (옛)부평조병창
CULTURE INFO
NEWS BRIEF
COUNCIL NEWS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 이호진 인천시 청소년 웹진 'MOO' 기자

6월호



포커스 | 2015 세계교육포럼 성공 개최
인천의 섬 | 무의도 하나개 해변
니하오 유커 | 영종도 명소
6.25와 인천 | 황해도 사람들의 인천 피란사
인천의 국제시장인 '중앙시장'과 황해도 사람들
찾아슈 | 국내 첫 수륙양용 버스 운행
내 일 내 길 | 상상작은도서관 대표 정춘진
까치밭로 본 인천 | ⑥ 수도국산 → 송림동
CULTURE INFO
NEWS BRIEF
COUNCIL NEWS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이달의 책
모닝 커피 한잔 | 전선영 인천스마일센터장

7월호



인천 섬 | 풍경 그리고 발걸음
테마 여행 가이드
민선6기 1년 특집 | 도약한 일 년
더 눈부실 내일
시장, 시민과 한 테이블에 앉다
포커스 |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찾아슈 | 인천신항 개항
까치밭로 본 인천 | ⑦ 송월동 → 인천항
내 일 내 길 | 인천서예대전 대상 이해원
CULTURE INFO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원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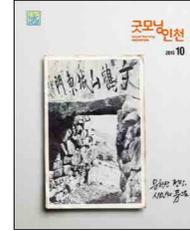
인천, 문화의 중심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특집 | 광복 70년, 그리고 인천
그곳에 가고 싶다 | 인천 영화 촬영지
포커스 | 수도권 매립지
내 일 내 길 | '고산자의 후예들' 김홍국 대표
까치밭로 본 인천 | ⑧ 동암역 북광장 → 신흥동
CULTURE INFO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 황재순 전 부개고등학교 교장

9월호



추석 특집 | 한옥 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포커스 |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주목, 인천의 책 | 전자 인천석급
니하오 유커 | Old&New
인천의 섬 | 문갑도
인천 가치 재창조 | 동인천이야기
내 일 내 길 | '바람의 심장' 펴낸 시인 박일
까치밭로 본 인천 | ⑨ 인천역 부근 철로변 → 송월동
CULTURE INFO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 김학균 시인

10월호



찾아슈 | 2015 프레지던트컵 가이드
인천만의 가치창조 | 문학산 정상부 개방
화보 | 문학산의 옛 모습
테이스트 로드 | 인천 맛집
문자 도시, 인천 |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내 일 내 길 | 콘체르트아트하우스 고촌
까치밭로 본 인천 | ⑩ 송현동 솔빛아파트 → 동인천
CULTURE INFO
시간 속을 걷다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춤인 | 인천시민의 날
NEWS BRIEF
COUNCIL NEWS
INFO BOX
이달의 책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 심현빈

11월호



인천만의 가치창조 | 등대섬 선미도
춤인 | 디자인 도시 인천
포커스 | 인천시 8대 전략 산업
애! 영종(永宗) | 영종진 복원
영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깊어가는 가을 | 인천의 선술집
내 일 내 길 | 영화감독 백승기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2015 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관
까치밭로 본 인천 | ⑪ 용현동 엑슬루타워아파트 → 수인역
CULTURE INFO
시간 속을 걷다 | 컴팩스마트시티 특별전
NEWS BRIEF
COUNCIL NEWS
포커스 | 주민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탐방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INFO BOX
독자가 꾸미는 인천 '애 옛날이야'
모닝 커피 한잔 | 김남일 인천소방본부 소방관

봄이 오면, 아이들과 강화 땅을 밟으리

글 최보길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교사



올해 유독 심했던 가뭄 때문이었는지 강화에는 가을 단풍이 조금 늦게 온 것 같다. 울긋불긋 나뭇잎의 색깔도 다르고 또 같은 계열의 색이라도 농도가 달라 강화 단풍은 더 깊은 맛을 낸다. 강화도의 단풍이, 다양성은 자연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풍요로움을 가꾸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듯하다.

이른 아침! <굿모닝 인천>의 '모닝 커피 한잔'을 타는 나는 사실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동쪽 끝에서 태어나 서쪽 끝 강화도에 정착하여 아이들을 만난 지 10여 년이 지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강화군민이 되고 인천시민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는 나고 자란 곳으로부터 받는 강렬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사회적 유전자와 같아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고 자란 곳에 대한 호감이 되어 곧 그 지역의 미래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인천(강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려주는 '지역에 대한 교육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내가 발 딛고 있는 강화도를 여러 사람과 답사하며 지역에 대한 호감을 아이들과 함께 키워가고 있다.

학생 때 지리(地理) 수업을 들으면서 '분수계'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다. 분수계는 비가 내리고 그 빗물이 강으로 모일 때 서로 다른 강으로 흐르게 하는 낙하지점의 경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빗방울은 태백산으로 흘러 한강이 되고 어떤 빗방울은 더 남쪽으로 떨어져 낙동강 물이 된다. 하늘에서 한 몸으로 내린 비이지만 몇 센티미터 안 되는 분수계의 구분으로 한강이 되기도 하고 낙동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빗방울은 그 운명에 따라 한강과 낙동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쌓아가게 된다. 우리는 강화 인천이라는 강으로 향했고 흐르는 동안 그 기억을 마음에 익히게 되었다.

요즘 청년들이 무척 힘들다. 취업과 학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청년도 많다. 그 양상은 농촌보다는 도시로 또 서울로 향한다. 이러한 현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나고 자란 곳을 위해 쓰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났던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 아이들이 그 언젠가 강화도로, 인천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들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 아마도 첫째는 경제적 조건이고 그다음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애정과 긍지가 아닐까?

얼마 전 내가 발 딛고 있는 강화도에 대하여 <강화도의 기억을 걷다>라는 제목의 책을 엮었다. 강화도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고향에 대한 교육은 어른이 꼭 해줘야 할 책무가 아닌가 싶었다. 부모가 또 선생님이, 강화도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걸어주기를 위한 바람과 그 기억이 먼 훗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잠재적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올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면 지난 겨울내 읽었던 책 한 권 집어 들고 아이들과 인천 강화땅을 함께 밟으면 어떨까?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 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이불루 화이불치) ”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건축물에 대한 김부식의 표현이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인용되었다. '가슴에 새긴다'는 말도 사치스럽다. 그저 열심히 살아서 누추하지 않고 혹 사람다움 잃어버리고 화려함만 좇아서 사치스럽지 않게 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앞만보고 달렸습니다”

또 한 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제, 그제 이 공원에는

벚꽃도 피었다고 합니다.

장미도 향기를 냈다고 합니다.

단풍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 이렇게 달렸습니다.

- 중구 자유공원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 편집장